“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YWCA 1922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1922 장학금은 청년, 청소년 장학금과 YWCA 청(소)년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국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100년을 넘어 깨어 있는 청년성과 시대의식으로 연대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1922-0000-31 한국YWCA연합회

온라인 모금함에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YWCA연합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 651.1385	(사)안동	054.854.5481
(사)거제	055.682.4950	(사)안산	031.483.6536
(사)고양	031.919.404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광명	02.895.1966	(사)양산	055.367.1144
(사)광양	061.762.0012	(사)여수	061.654.2161
(사)광주	062.609.1300	(사)울산	052.247.3520
(사)군산	063.462.4491	(사)원주	033.742.6090
(사)김해	055.332.6000	(사)의정부	031.853.6332
(사)남양주	031.577.7762	(사)익산	063.857.8910
(사)남원	063.632.7002	(사)인천	032.424.0524
(사)논산	041.736.7393	(사)전주	063.224.5501
(사)대구	053.652.0070	(사)제주	064.711.8322
(사)대전	042.254.3035	(사)제천	043.645.2580
(사)동해	033.531.3007	(사)진주	055.755.3463
(사)마산	055.246.8746	(사)진해	055.542.0020
(사)목포	061.242.1611	(사)창원	055.283.9488
(사)부산	051.441.2221	(사)천안	041.575.0961
(사))부천	032.668.9700	(사)청주	043.265.3700
(사)사천	055.833.2344	(사)춘천	033.254.4878
(사)서귀포	064.762.1400	(사)충주	043.848.3240
(사)서울	02.3705.6000	(사)통영	055.646.2547
(사)성남	031.708.2503	(사)파주	031.945.5998
(사)세종	044.865.2432	평택	031.651.7701
(사)속초	033.635.3523	(사)포항	054.274.4444
(사)수원	031.252.5111	(사)하남	031.793.7771
(사)순천	061.744.7990		

한국 YWCA

2023년 11·12월호
NOV·DEC Vol.587

기획 | 제30차 YWCA 세계대회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의 힘, YWCA
세계YWCA 결의문_동아시아 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연대 구축
세계YWCA 성명서_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변화와 혁신
49개 회원YWCA 지역법인 전환 완료

YWCA 기도순례
회원YWCA 순례기도회에서 확인한 정의, 평화, 생명의 YWCA 정신

크리스챤의 눈으로 보는 문화
사실 너머의 세계를 보려 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괴물’이다

(사)한국YWCA연합회

팔레스타인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팔레스타인에 공습이 시작된 직후 한국YWCA는
팔레스타인YWCA 활동가들과 소통하며 팔레스타인 활동가와 민간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열리지 않는 국경 앞에서 쌓여만 가는 긴급 지원 물자를
보내기보다 팔레스타인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함께 씨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오래 전부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땅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올리브 재배를 방해하였고
이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올리브나무에는 힘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킬 수 있는 힘,
스스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힘,
지친 이들의 생명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팔레스타인 평화의 상징입니다.

2024년 새해를 기다리며, 평화의 소망을 가득 담아

올리브나무를 심어 주세요.

본 모금은 팔레스타인YWCA에 전달되어 올리브나무를 심는 데 사용됩니다.

2023. 11·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한국YWCA가 11월 15일(수) 주관한 제162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외쳤다.

2024년 1·2월 주요일정

1월 10일	YWCA 신년예배
1월 13일	흥청망청 최종공유회
1월 16일	2024 Y-틴 전국협의회
1월 19일	한일YWCA 웨비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월 20일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2월 5일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
2월 13일~15일	한일Y 청년협의회
2월 14일	한국YWCA 주관, 수요시위
2월 22일	2024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제59권 제6호 통권 587호
2023년 12월 22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산나 이주영 정소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04 **이달의 생각**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공감과 연대로 행동하자 | **한금진**
05 **월례기도회** 하나님의 뜻대로 | **홍보연**

기획 | 제30차 YWCA 세계대회
06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의 힘, YWCA | **최수산나**
09 세계대회 방청대표 참가기 | **김혜진, 김대영**
10 세계YWCA 결의문_동아시아 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연대 구축
11 세계YWCA성명서_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12 **평화** 팔레스타인-이스라엘과 YW·YMCA | **이윤희**
14 **탈핵** 기후위기 역행하는 핵발전 확대, 선두에선 한국 정부 | **이영경**
16 **성평등** 성평등 관점에서 본 여성 예능 <사이렌: 불의 섬> | **김선영**
18 **소비자 운동** 온라인 식의약 과대·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예방 | **안정희**
20 **청년토크** 나의 스무 살 | **대학·청년YWCA**
22 **변화와 혁신 16** 49개 회원YWCA 지역법인으로 전환 완료 | **조직혁신지원국**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단 활동 소감 | **자문단**
26 **YWCA기도순례** 회원YWCA 순례기도회에서 확인한 정의, 평화, 생명의 YWCA 정신 | **원영희**
제2기 회원YWCA 릴레이 순례기도회를 마무리하며 | **구정혜**
29 **지역과 함께** 보고 만나고 사랑하자 in 수라 | **김수현**

32 **이달의 현장 ①**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 **편집실**
34 **이달의 현장 ②**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여성, 한국여성지도자상 | **박효정**
36 **이달의 현장 ③**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 세상의 큰 변화 가져온다 | **홍수진**
38 **이달의 현장 ④** 민법과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 되도록 제도 보완해야 | **임지혜**
41 **이달의 현장 ⑤** "앞으로도 여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YWCA가 협조해달라" | **편집실**

44 **2023 성탄예배** 주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이진아**
46 **크리스챤의 눈으로 보는 문화** 사실 너머의 세계를 보려 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괴물이다 | **이윤숙**
48 **연수보고기** 진정한 탈핵국가 독일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김신희**

50 **연합회 소식**
55 **회원YWCA 소식**
68 **2023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공감과 연대로 행동하자

한금진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사)수원YWCA 회장

202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는 항상 우리에게 설레임과 희망을 갖게 하지만, 현재 지구촌 곳곳은 끝나지 않는 전쟁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폭설, 폭우, 태풍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 이변이 국경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지진과 해일 등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과 편리한 생활만을 추구했던 결과입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 등의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무분별한 개발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환경의 파괴와 여성과 어린이들에 가해지는 폭력과 살상을 매일 뉴스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재앙이 우리에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경고를 보내주고 있지만 현장에서 떨어져 사는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고 멀게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초기에는 우리 바다가 오염되면 어민들의 삶이 어려워질뿐 아니라, 우리 먹거리가 오염되어 미래 세대들에 대한 건강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과학적 근거 운운하며 괴담시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이제는 그저그러한 사안으로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고 무마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일이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왜 떠들어?'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문제로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위기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전 세계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한국YWCA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고 이 땅에서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한국YWCA 중점 운동인 탈핵기후생명운동과 지역특화 운동인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을 통해 지역과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미얀마의 민주화활동,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여러 분쟁지역에서 전쟁이 멈추고 폭력이 근절되도록 세계YWCA 회원국들이 연대하여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YWCA는 책무성과 투명성과 공공성을 갖춘 건강한 운동체로서 올바른 역할과 행동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2024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의 주님과 함께하는 YWCA는 앞으로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YWCA의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충실히 이행해줄 수 있는 일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협력하며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내어 새해에도 더욱 강건하여 행동하는 YWCA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 21:28~32

홍보연
목사,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원장

어느새 2023년의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니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기 적절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해였나요? 한국YWCA는 올해가 101주년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대와 희망으로 한해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경험했으며 그 일들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성장으로 남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새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한해를 성찰한다고 할 때 계획한 것을 잘 이루었는지, 잘 안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보완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더 바람직한 성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했는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뜻대로 하고자하는 열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집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큰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 분문을 묵상하면서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 까닭은 무엇일지 그 마음에 머물러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며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원지 않았던 것이지요. 혼이 날까봐, 상속을 못 받을까봐 같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뉘우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metamelomai)'입니다. 메타는 '~의 가운데서'라는 말이고 멜로는 '관심이 있다, 관계하다'라는 말입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관계를 그 중심에 놓는 것, 혹은 관계 안에서의 화해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뉘우친 자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음의 질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1. 올 한 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 어떤 기억들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2. 올 한 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3. 올 한 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의 힘, YWCA

| 최수산나
(사)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

제30차 YWCA 세계대회가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한국시간 기준 오후 8시-11시 온라인(루미 플랫폼)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YWCA 역사상 첫 온라인 총회로서, 71개 국가 YWCA에서 6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세계YWCA는 아시아, 아프리카, 캐리비안, 유럽, 중동,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태평양 지역의 90여 개 회원국이 연합하는 협의체로서, 4년마다 개최되는 YWCA 세계대회를 통해 회원국 대표들이 세계YWCA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선출한다.

이번 세계대회에 한국YWCA는 2명의 청년대표를 포함한 총 6명의 정식대표, 그리고 회원YWCA와 연합회에서 10명의 방청대표를 파견하였고, 두 차례의 정대표 사전모임과 한 차례의 방청대표 모임을 진행했다. 정대표들은 세계YWCA 전략과 문서들을 공유하고, 투표 후보자를 검토하였으며, 한국YWCA 제안 결의문과 성명서를 조은영 연합회 제1부회장의 발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YWCA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통과시키고, 더불어 다른 국가들의 결의문과 성명서 채택에도 영향

력을 행사하였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전쟁, 성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시의성 있는 행동들이 제안되었으며, 소녀들과 젊은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활동이 부각된 자리였다.

세계YWCA '목표3025(Goal 3025)를 향한 '2024-2027 전략적 프레임워크(Framework)' 합의

이번 총회에서 세계YWCA가 가장 힘을 기울이며 협력을 요청한 사항은 '2024-2027 전략적 프레임워크'이다. 세계YWCA는 지난 2019년 진행된 제29차 세계대회 이후 코로나 감염병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2020-2023년 전략적 프레임 워크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했음을 보고했다. '목표 2035'는, 변화를 일으키는 담대한 목표를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평가를 완료하는 시점인 '2035년까지 1억 명의 젊은 여성들이 정의롭고, 평등하며,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며,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YWCA 운동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협의 방법론'을 출판하고,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남수단에서 YW4A(Young Women for Awareness, Agency, Advocacy and Accountab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여성 리더십을 강화했으며, 세계YMCA, 유엔재단, WHO 등의 국제 기관들과 더불어 '세계 청소년 동원(Global Youth Mobilizati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계YWCA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중점운동 로드맵을 통해 주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온라인에서 열린 30차 YWCA세계대회에 한국YWCA는 6명의 정대표와 10명의 방청대표를 파견했다.

이번에 제안된 '2024-2027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정의, 평화, 건강, 인간의 존엄성, 자유, 모든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리더십과 집단적 힘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2035'를 위해, '운영과 경영 우수성', '전략적 파트너십과 소통', '청소년과 청년 및 여성들의 참여와 동원'이라는 3개의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ies, SP)'를 두고, 그 아래 총 9개의 '핵심 활동(Key Initiatives, KI)'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핵심활동으로 각 회원국들의 자격 문제와 규정 준수 강화, 그리고 전자투표 프로세스 강화를 통한 현대화된 운동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번 세계대회를 앞두고 확인된 총 18개의 회원국 자격 정지와 총10개 국가의 탈퇴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2023년 1월 스위스 회사법(Swiss Company Law)이 개정되면서 세계YWCA와 같은 연합기관에서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게 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 밖에도 경영가이드라인 개정 및 에큐메니컬·개발·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운동역량 강화, 다양한 전략을 통한 펀딩 및 자원 확보, 주창활동 강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가시적 효과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여성 청년 리더 참여 시스템 구성 및 세계Y 운동 외교대사 시스템 구축, 세대 통합적인 도구 개발, 안전한 공간 가이드 및 라이즈업 리더십 모델 채택 확대, 페미니스트 컨설테이션 방법론 확산 등을 핵심 활동으로 두고 있다. 이는 사전 개최된 지역별 회의에서도 공유됨으로써 참가국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본 대회에서 전 세계 동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3개의 결의문과 6개의 성명서 채택

한국YWCA는 '동아시아 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연대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으로, 특히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지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공동안보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결의문 제출에는 사전 1개국 재청과 최소 4개의 다른 지역에서 총12개 국가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재청국인 팔레스타인(중동)을 포함하여 일본, 대만, 필리핀, 미얀마, 태국, 네팔, 인도(이상 아시아), 레바논(중동), 나미비아(아프리카), 우크라이나(유럽), 아이티(캐리비안), 볼리비아(라틴아메리카) 등 6개 지역

의 총13개 국가YWCA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 또한 본대회에 앞서 11월 20일(월) 및 22일(수) 두 차례의 사전 워크숍을 열고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11월 21일(화)에는 '아시아지역회의'를 대만YWCA와 공동 주최하였고,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이 아시아 지역 YWCA 목소리와 연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YWCA가 제안한 결의문은 95% 이상의 지지를 받았으며, 팔레스타인 제안의 '정의로운 평화' 결의문과 네덜란드 제안의 '중동지역의 인권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운동 지원' 결의문까지 총 3개가 채택되었다. 결의문은 향후 4년 간 세계YWCA의 운동정책에 반영되며 이와 관련된 운동을 전 세계YWCA가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YWCA는 일본YWCA와 협업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서'를 작성하고 전 세계YWCA에 핵발전과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다. 참가 회원국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방류 중단 활동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성명서는 8개국 동의가 필요한데, 재청국인 일본을 포함해서 대만, 태국, 미얀마,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그리스, 아르메니아, 스웨덴, 캐나다, 케냐, 짐바브웨 등 총15개 국가의 지지를 받았고 역시 95% 이상의 지지를 통해 통과되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선주민 인권 보호와 정책 이행, 네덜란드의 안티페미니즘에 저항하는 여성인권 행동, 미얀마 여성과 소녀들의 보호, 호주의 태평양 지역 기후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의 회복과 핵심 주체 세력화, 볼리비아에서 발의된 페미사이드와 성폭력에 반대하는 성명서 등이 채택되었다, 성명서는 모두 세계YWCA의 목소리로 전 세계 운동 네트워크에 전달된다.

선거 : 임기를 마친 한국YWCA 리더

세계YWCA의 회장으로는 팔레스타인YWCA 미라 리제크(Mira Rizeq) 회장이 연임하였으며, 회계 이사로는 미국YWCA의 티나 헤레라 (Tina Herrerar)가 선임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이사는 인도, 미얀마, 대만에서 선출되었으며, 총 6인의 부회장 중 아시아 지역은 대만YWCA 마가렛 쿠오(Margaret Jip Kuo)가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번 세계대회로 세계YWCA에서 4년의 이사 및 8년의 공천위원 총 12년간 활동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8년 간 세계YWCA 부회장을 맡은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두 분의 헌신과 주도적인 활동으로 세계YWCA 운동의 저변이 확대되고 아시아YWCA 운동과 연대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기

지난 2019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9차 세계대회 이후, 이번 회의는 첫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질문도 토론도 많은 장이었다. 더구나 세계대회 중에 젊은 이사들의 참여가 돋보였고, 선거에서는 총56%가 20대 이사로 선출되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세계Y 회원국들의 책무성과 자격 기준 강화가 강조되었는데, 회비 미납 및 국가별 보고 조사 미참여 시 자격이 정지되는 기준이 재차 확인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시의성 있고 힘있는 결의문과 성명서들이 채택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성 혐오와 인권, 분쟁과 평화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온라인 현장도 뜨거웠고 지지율도 높았다. 또한, 온라인 회의에 생생함을 불어넣기 위해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고, 첫째 날 전통복으로 시작하여 성폭력에 대응하는 주황색, YWCA 액세서리, 검은 목요일,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는 붉은 색으로 날마다 의미를 담은 의상을 착용하였다. 한국YWCA 대표들은 100주년 색동 스카프를 첫날과 셋째 날 착용하였으며, 적극적이고 진지한 참여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였다.

세계YWCA 목표 2035를 향한 2024-2027 전략적 프레임워크, 그리고 각 국가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결의문과 성명서들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YWCA를 비롯한 세계YWCA는 지역과 세대를 통합하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해 정의롭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연대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욱 강한 연대로 함께 할 YWCA 자매들의 시간들이 기대된다!

참 가 후 기

방청대표 참가기

SISTERHOOD!

김혜진 (사)부산YWCA 제1부회장

제30회 YWCA세계대회 역사적인 첫 온라인대회에 방청대표로 부산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참여할 수 있어 모태 YWCA회원으로 자라온 나에게는 특별한 기쁨이며 영광이 되었으며 한국YWCA의 역량과 전문성이 자랑스러웠다.

"후쿠시마 제 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세계YWCA 성명서"는 일본의 재청과 총 15개국의 지지, 95% 투표로 통과되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연대를 촉구하는 조은영부회장과 이한빛간사의 발언이 뜨거운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채팅창에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어 나는 일본정부가 핵오염수를 ALPS WATER라 이름지어 맑은 물을 연상시키며 재처리가 잘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부산Y는 2011년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하여 한국Y와 부산시민과 연대하여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현재도 후쿠시마핵오염수 방류 반대는 물론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어 더 감동이 되었다.

한국YWCA 스탭들은 이번 온라인대회의 방대한 선거 자료와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번역해 주었고, 방청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일정정리까지도 탁월하게 잘 해 주셨다. 조은영부회장님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결의문 발표'는 결연한 의지를 세계에 공포하고 지지를 구하는 독립선언의 느낌과도 같았다. 팔레스타인이 재청하고 12개국이 지지하여 발의가 되었고 채택이 되었다. 상세한 경과 설명과 방법호소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졌다. 상세한 영상자료에도 이한빛 간사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담겼다. "Time for Solidarity and Peace!"

느낀 점으로는 첫째, 우리의 이슈는 세계의 이슈이고 세계의 이슈 또한 오늘 우리의 이슈라는 사실이다. 이슈를 기도로 바꾸어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Y와 연대하는 모습은 시스터후드로 어깨 걸고 옳은 길로 함께 나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감격스러운 점이었다. 둘째, 기간 중 함께 모여 참여와 토론을 하셨던 한국 정대표들의 안정되고 국제적인 리더십과 실무활동가들의 전문적인 지원에 존경과 감사가 우러나왔다. 원영희 회장님과 조은영부회장님을 비롯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의 완벽한 호흡이 아름다웠다. 베테랑의 품격과 젊은 세대의 열정과 비전을 세계무대에서 함께 펼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뜨거운 박수가 나왔으며 자랑스러웠다. 한국Y의 100년을 위해 헌신해 온 선배님들과 새로운 100년을 이어갈 후배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며, 모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탁월한 한국YWCA의 리더십과 역량

김대영 (사) 한국YWCA연합회 키다리학교TF 위원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30차 YWCA세계대회에 온라인 방청대표로 참여하면서, 한국YWCA가 전세계 회원 활동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세계대회는 올해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YWCA 본부의 매끄러운 운영으로 전 세계 500여 명의 참여자들은 세계 평화와 정의구현, 성평등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5일 내내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에 다다르고 리더십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었다.

한국YWCA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YWCA 세계대회에 처음 방청대표로 참석자에게도 깊은 감동이 전해졌다. 한국YWCA는 3가지 점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했다.

첫째는 전세계 안보에 대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 세계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로 응답할 기회를 주었다. 안보 위기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놓이게 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 리더들이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일은 그만큼 임팩트가 크다. 그 역할을 한국YWCA가 전세계 여성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인 액션 중에서 "1달러 모금 운동"은 회원 국가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국YWCA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지를 끌어내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의 이슈가 전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막는 데 전세계인들이 참여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

둘째는 한국YWCA는 세계YWCA가 정한 의상코드에도 가장 다수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리더십 액션을 보였다. 의상코드는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의 주간 등을 비롯하여, Y의 비전과 맥을 상통하는 의미가 큰 참여였다.

셋째, 비대면 대회는 참여자들이 회의에 소극적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대회 참여자의 80퍼센트가 화면을 끈 상태로 회의에 참여한 반면, 한국YWCA 참여자들은 화면을 켜고 있는 20퍼센트 이하의 소수에 꼽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다른 회원국들이 제안한 결의문과 성명서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한국YWCA는전세계에서 비대면으로 회의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제30회 세계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한국YWCA의 자원활동가 회원으로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더 알찬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

동아시아 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연대 구축

1. 발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대분단체제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한·미·일과 북·러·중으로 양극화된 군사동맹 체계가 강화되고 군비경쟁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공동 안보의 장치들은 무기력해졌다. 이러한 분쟁과 무력 갈등 상황 속에서 여성들과 여아들은 물리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지며 이중 삼중의 폭력에 노출된다.

이에 세계YWCA는 폭력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여성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지향하는 비전2035에 의거하여, 동아시아의 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다음의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한다.

1)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들을 지지하고 관련한 활동들을 적극 전개한다.
2) 지역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지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공동 안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간다.

2. 발의 논거

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20세기 제국의 시대와 냉전의 시대를 겪은 동아시아가 분쟁의 축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화 가속화,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대만 분쟁 우려, 각 국가들에서 지속되는 시민사회 탄압 등, 동아시아 사회들 안에 잔존하는 전체주의는 민주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미·중·일·러의 정치·군사적 상황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분쟁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 분쟁과 취약국에서 젠더 이슈는 더욱 심각하다. 성 불평등과 성 착취가 가중되고 여성 및 여아들에 대한 교육 상태와 사회적 위치는 열악해진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1325호는 분쟁 상황 속에서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성·평화·안보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여성기구는 여성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재난 회복력을 구축하는 일에 기여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세계YWCA 비전2035는 여성의 리더십에 의해 유지되고 촉진되는 정의와 평화를 강조한다. 젠더 관점을 통해 여성 인권을 지원하고 여성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은, 분쟁 상황 속에 있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천 과제이다.
3) 지역과 국경을 넘어 교류하고 연대하는 시민사회 조직들은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아시아 공동 안보를 위한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3. 세계YWCA 목적 및 우선순위와의 일치에 대한 방안, 그리고 옹호활동 로드맵 2022-2024 및 목표2035의 공동성취 기여에 대한 방안

- 분쟁 및 취약국 지원과 협력 상황에서, 젠더 관점에 기반하여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지지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 젊은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분쟁 해결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한다.
- 평화를 구축해가는 과정에 여성 리더십 강화 및 여성의 참여 강화를 지속 확인해간다.

4. YWCA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들

1)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위에 반대하며 동아시아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행동에 적극 연대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대만해협의 평화체제 구성, 버마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 등
2) 전쟁과 무력 충돌에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동참한다. : 평화 행동을 지원하는 1달러 모금 운동 전개
3) 지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연대를 구축해나간다.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네트워크' 결성. 4월 24일 세계YWCA의 날을 '세계평화행동의날'로 선정하여 온라인 캠페인, 모금 캠페인, 교육 등 전개

5. 기대 성과

-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 지역 및 관련 국가들의 시민사회 평화 연대 강화
- 국제 사회 평화 분위기 조성 및 확산
- 여성의 평화·안보에서의 주체성 강화
- 젊은 여성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

6. 지역 및 회원국들, 세계Y의 재정 관련성

- 전쟁과 무력 충돌에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 국가 단위로 평화행동 1달러 모금 운동 전개
- 세계YWCA 사이트 내 모금함 개통
- 동아시아 여성네트워크 협의를 통해 모금 지원 결정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1. 발의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일본정부는 지금 즉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중단하고,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실행해야 한다.
- YWCA 글로벌 운동은 국제 사회와 함께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인류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 각 국가 YWCA는 자국 정부가 자국민과 미래 세대, 특히 여성, 젊은 여성 및 소녀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방류 중단을 요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2. 발의 논거

일본 정부가 '처리수'가 부르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는 여전히 인체에 유해한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동 중인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과 어린이들 사이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불균형적으로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방사성 핵종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세포 구조와 생식계, 그리고 태아를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2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겪고 있다. 더구나, 해당 지역명 자체가 '오염'과 연관되면서 생존자들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가 점점 정치적인 이슈로 변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감정을 안전하게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들은 더 큰 저장 탱크로 옮기거나 시멘트로 고체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 계획적인 방류는 최소 30년 이상 계속될 것이며, 그 영향은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확산될 것이다.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는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세계YWCA 목적 및 우선순위와의 일치에 대한 방안, 그리고 옹호활동 로드맵 2022-2024 및 목표2035의 공동성취 기여에 대한 방안

'세계YWCA의 임무'는 여성 리더십을 통해 환경보호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목표 2035'을 향해 환경 정의와 여성 건강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방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지구 환경과 생명체에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방류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 젊은 여성 및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 내에서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국YWCA와 일본YWC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하고 있으며, 지역 YWCA와 젊은 리더들은 성명서, 기자 회견, 거리 및 온라인 캠페인,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YWCA는 환경을 보호하는 명확한 입장을 국제 공동체와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방류를 중단시킴으로써,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땅과 생존을 지키고 가자지구 어린이와 난민들의 피난처 마련하자

| 이윤희
고양YMCA 사무총장, 올리브나무평화한국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제 2의 홀로코스트, 가자지구

이스라엘은 최근 남부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재개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철수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북부에서 온 수십만 명의 난민들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말 그대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다. 20년 동안 계속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에서 미국이 사용한 폭탄(7만8천 톤)의 1/3에 해당하는 2만5천 톤이 한 달 동안에 가자지구에 투하되었다. 학교, 교회, 병원, 주택 등 가자지구 북부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가자지구의 80%에 달하는 19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또 다시 난민이 되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1948년 나크바(Nakba) 당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240여 개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쫓겨났던 난민들이다.

이스라엘의 침공 기간 동안 어린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죽음의 속도는 금세기에 전례가 거의 없는 수준"(New York Times, 11.25.)으로 "1948년 나크바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군사 작전"(이스라엘, +972)이 되고 있다. 가자지구는 폐허가 됐고, 기본적인 물, 음식, 의약품, 전기, 위생(하수구와 송수관) 등의 부족으로 기아와 목마름으로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

가자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사람들은 1,200여 개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명령에 의해 통제받는다. 수자원, 전력, 건축, 천연자원, 토지 등 모든 것에 대한 군사 명령이 존재한다.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특히 나블루스, 예닌, 툴카렘 지역에서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펼쳤다. 2023년 7월 3일, 1천여 명 규모의 이스라엘 군이 헬리콥터, 드론 및 중화기를 동원하여 예닌을 공격했으며, 48시간 지속된 이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1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서안 지역 팔레스타인 173명이 사망했고, 670명이 부상당했다. 올해에만 4,5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구금되었으며 그 중 1,200명은 아무런 혐의나 재판 없이 행정구금 되었다. 또한 불법정착민들에 의한 팔레스타인인들 공격이 올해에만 600차례 이상 발생했다. 96만 명에 달하는 정착민들이 서안지구에 위치한 200여 개의 정착촌 및 150개의 아웃포스트에 거주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도시 연결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점령촌 건설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3,500채의 주택 건설을 승인한 것에 이어 11월 29일, 추가로 1,738채의 주택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토지와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불법정착촌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알 아크사 사원과 같은 종교시설을 침탈하거나 파괴하는 등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도 자극한다.

75년 간 지속된 불법점령과 인종청소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이 없는 새로운 중동 지도를 제시했으며,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는 "가자지구에는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YWCA, YMCA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민간단체들은 '가자지구에서는 집단 학살과 홀로코스트가 진행 중이며, 이는 팔레스타인인을 제거하고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난 75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말한다. 1973년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했듯이 이것은 일회적인 단순한 '보복 전쟁'이나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종청소와 불법점령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과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점령의 유대민족주의(시오니즘)와 평화의 반시오니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실현된 성서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기독교시오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기독교시오니즘은 '약속의 땅을 회복한다는 선민(選民)의식'으로 '점령과 정복,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시오니즘'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점령과 인종차별, 집단처벌(구금, 강제이주, 학살 등)의 불가피함을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회피하게 된다.

지난 11월 28일, 미국 하원은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제홀로코스트 추모연합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인용하고 "반시온주의는 반유대주의"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불법점령과 인종차별 정책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반유대주의로 몰아감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오니스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비판과 반시오니즘 평화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휴전을 촉구하는 UN 결의안이 지난 10월 27일,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이후, 12월 12일에 193개국 중 153개국의 찬성으로 다시 한번 채택되었다.

지구시민사회 또한 이스라엘의 불법점령과 대량학살을 규탄하는 시위와 보이콧운동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종교로 각색된 '유대민족주의 시오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시오니즘은 각국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현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시오니즘'의 이름으로 유대민족주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평화를 만드는 세상의 동행자로 가기 위한 어두운 터널이다.

올리브트리캠페인과 가자 어린이, 난민 지원 캠페인

팔레스타인YWCA와 YMCA는 2002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땅과 생존을 지키고, 희망을 상실한 청년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올리브트리캠페인과 청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JAI(Joint Advocacy Initiative)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YWCA와 YMCA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으로 20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2천 그루(1그루 3만원)를 목표로 올리브트리 후원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헤브론과 나블루스 지역의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땅에 후원자들의 이름으로 올리브나무를 심고 있다. 올해에는 4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올리브트리캠페인과 함께 특별히 가자지구 어린이와 난민들의 피난처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모금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세계YWCA와 YMCA는 매년 10월, 팔레스타인을 방문하는 '세계YW-YMCA 평화순례의 날'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YWYM 평화순례의 날'을 한국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것은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평화를 잇는 동행의 길, 약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평화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 역행하는 핵 발전 확대, 선두에 선 한국 정부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핵 발전을 세 배 확대"하는 서약. 지난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약속이다. 120개가 넘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세 배와 에너지효율 2배 확대" 서약에 공을 들일 때 한국 정부는 핵발전 마케팅에 공격적이었다. COP28에 함께 자리한 한국관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전시하고, 탄소중립 모델이라며 홍보하기도 했다. COP28에서 화석연료의 퇴출과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 그리고 파리협약 목표에 맞는 전지구적 이행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가져다 주었다.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재앙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이미 발생한 기후재난에 정의롭게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자리가 바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다. 물론 다양한 국제관계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실과 피해 기금에는 합의했지만, 화석연료 퇴출이 아닌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이라는 점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파리협약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최종 합의문 제28항에 명시한 내용이다. EU와 미국 등이 제안한 재생에너지를 세 배로 늘리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되면서 전 세계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방안 중 하나로 '원자력'을 포함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 과정에 COP28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적극적으로 핵발전 협력을 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한국 정부가 이번 COP28에 핵발전 확대를 홍보할 것은 예견된 사실일지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표방한 대통령답게 무려 올해만 13차례의 해외 순방을 다니며 한국의 핵발전 판매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12월 네덜란드 방문이나 11월 영국 방문에서도 원자력 협력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발전과 SMR 수출 협력 강화를 말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월에는 UAE 바카라 핵발전소 가동식에 직접 참석한 데 이어, 6월 베트남, 7월 폴란드, 9월 G20 정상회의와 유엔총회에서도 핵 수출과 SMR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해외 설비 프로젝트 수주하고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미 필리핀 바탄(Bataan) 핵발전소 건설에 한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튀르키예에 1400MW 규모의 한국형 핵발전소 4기를 건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은 한국과의 SMR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위험을 수출하는 국가의 최선두에 한국이 있다.

초기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핵발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 후 위험의 상징이 되어 G20 국가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퇴출의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의 기술로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핵폐기물 문제와 기후위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위험은 이 흐름에 가속 페달을 달아 주었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핑계를 대며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핵발전을 검토하고 있어 안타깝다. 전 세계에서 신규 건설하는 핵발전소 57기 중 중국의 21기를 포함한 38기가 아시아 국가에 해당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여기에 기름을 부으며 핵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을 보면 이런 흐름이 분명히 보인다. 9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며 직접적인 핵발전 협력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라는 확실한 대안을 회피하는 한국의 정책과 핵산업의 수출 정책이 '탄소감축'과 '국익',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순간이다.

핵발전 수출은 결국 국내 핵발전 확대를 부추기며 악순환을 이어간다. 2013년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정부는 UAE와 맺은 핵발전 수출계약 때문에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다. 앞으로 내세운 명분은 국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었지만, 당시 한국전력 부사장이 사실은 UAE에 핵발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 모델이 됐기 때문에 신고리3호기를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지금도 핵발전 세일즈의 핵심은 '국내 핵산업 기술과 안정적인 핵발전 운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확대에 진심인 것은 이런 면에서 국내에 더 빠르게 적용된다. 당연히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고 법도 바꿔가며 열심이다.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노후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하고, 임시핵폐기장도 추가 건설하려 한다.

이런 진심은 예산 편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핵 수출에 더 투자하고 SMR 연구 예산도 엄청나게 늘렸다. 2023년 예산 중 신한울3, 4호기 등에 관련한 핵발전 일감만 3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예산 인상률은 무려 원전해체 사업 28.4%, 월성원자력관리센터 55% 등에 달했다.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3월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총 20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 협약도 체결했다. SMR R&D 예산은 2023년 38억7000만 원에서 2024년 332억8000만 원으로 760%, 약 8배 이상 증가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예산은 2024년 6045억 원으로 2023년 1조 490억 원에서 42% 감소했을 뿐 아니라 재난을 대비하는 재난연구비도 18.9%나 줄어들었다. 또한 장혜영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예정된 금액보다 2조7000억 원 줄었다. 이런 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핵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는 문제가 있다. 핵발전소 건설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석탄 발전을 멈추고 풍력이나 태양광에 투자한다면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다. 2030년까지 최소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숙제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과연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

핵발전은 방사능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 핵폐기물이라는 거대한 숙제, 초고압송전탑의 눈물, 지역공동체의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오로지 '탄소'를 줄인다는 허울로 모든 부정의를 덮어버리는 핵발전, 핵발전 확대 말고는 지금 당장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 심지어 탄소중립을 핑계로 위험을 수출하려는 핵산업계. 온실가스와 기후재난을 방사능과 핵 재난으로 바꾸는 것은 기후정의가 아니다. 기후악당 대한민국을 넘어 핵확대 악당 대한민국의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오롯이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탈핵은 단순히 핵위험에서 벗어나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단초이기 때문이다.

성평등 관점에서 본 여성 예능 <사이렌 : 불의 섬>

| 김선영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 대중문화평론가

2023년 5월 30일에 첫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이렌: 불의 섬>은 방영 전부터 같은 플랫폼에서 4개월 앞서 소개된 <피지컬 100>과 자주 비교당했다. 두 프로그램은 같은 서바이벌 리얼리티 장르인 데다 물리적 대결 위주의 경쟁 구도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특히 <피지컬 100>은 리얼리티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시청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에, 후발주자인 <사이렌: 불의 섬>이 비교를 피하기 어려웠다. 주목할 것은 <사이렌: 불의 섬>을 '여성판 <피지컬 100>'이라 소개하는 매체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여성판'이라는 수식어는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사이렌: 불의 섬>과 '여성판'이라는 문제적 수식어

첫째, 성별과 상관없이 '최강의 신체능력'을 지닌 이들이 출연하는 <피지컬 100>이 마치 남성들만의 쇼인 것 같은 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피지컬 100>의 여성 출연자 비율이 16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피지컬 100>에 출연한 여성 참가자들은 소수였음에도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면서, 기존의 성적 대상화되던 '몸매'가 아니라 '건강한 신체'로서 여성의 몸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여성판'이라는 수식어는 남성 중심적인 예능계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만약 남성들만 출연하는 피지컬 서바이벌 쇼가 등장한다면, 거기에도 '남성판 <피지컬 100>'이라는 소개 문구가 따라올까. 국내 리얼버라이어티의 원조인 MBC <무한도전>의 성공 이후 출연자 전원이 남성인 프로그램들은 예능계의 표준이 되었고, 드문드문 나오는 여성 예능 프로그램은 이에 대한 파생 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가 대다수였다. <무한도전>의 스핀오프 <무한걸스>(MBC every1),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MBC), KBS <1박 2일>의 여성 버전 <다녀오겠습니다-미녀들의 1박2일>(KBS Joy)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독립적 성격의 여성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여성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설명하는 관습으로 이어졌다. 단적인 예로 <골 때리는 그녀들>(SBS)이나 <노는 언니>(E채널)는 아직도 <뭉쳐야 찬다>(JTBC)의 여성판으로 소개되곤 한다. 이러한 관습은 여성 예능이 지닌 가치를 '여성주의적 의미'로만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렌: 불의 섬>의 성취는 여성주의적 의미와 더불어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호평을 이끌어냈다는 데 있다. 먼저 여성주의 예능으로서 문제의식은 제목에서부터 전면에 드러난다. 프로그램은 '공습경보', '아름답지만, 위험한 여자'라는 사이렌의 사전적 정의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이라이트 장면과 참가자들의 인터뷰로 구성된 프롤로그에서도 "여자들이 참 강하다"는 말이 강조된다. '강한 여자'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다. <사이렌>은 경찰, 군인, 소방관, 운동, 경호, 스턴트 등 총 6개 직업군의 팀대결로 이뤄져 있다. 이들 직업군은 하나같이 '힘은 곧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유독 강한 남초 직종이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1회 부제목에도 드러나듯, 참가자들은 소수자 여성으로서 사회적 편견과 부딪히며 '강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이렌>에서 신체적 능력을 발휘하는 미션이 주가 되는 것은 이같은 맥락 안에 있다. 갯벌을 가로질러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팀 깃발을 시합 장소로 옮겨야 하는 첫 미션에서부터 장작 패기, 팔씨름, 땅 파기, 깃발 뺏기 등의 본경기 미션에서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으로 부각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몸은 <피지컬 100>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 대상화의 시선을 벗고 강인한 신체로 재발견된다. 군인팀의 강은미가 아레나전 장작 패기 미션에서 웃옷을 벗어던지고 스포츠 런닝만 착용한 채 도끼를 내리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목표를 위해 효율화된 복장과 단련된 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 장면에는 그 어떤 외적 평가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성들의 강함이 신체적인 면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팀워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소수자들은 연대를 통해 살아남는다. 국내 여성 예능에서 팀워크의 가치는 최근의 가장 큰 성공 사례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격려하는 리더와 그를 믿고 따르는 팀원들의 결속은 전쟁을 포맷으로 하는 <사이렌>에서 한층 도드라진다. 갯벌에서의 첫 미션에서 1등을 달리던 운동팀이 힘들어하는 팀원을 위해 무게를 나눠지는 모습이나, 소방팀의 정민선이 부상당한 리더를 위해 혼자서 장작을 다 패는 장면 등은 <사이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장면들이었다.

직업정신에 충실한 이들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드라마

끈끈한 연합체를 구축했던 소방팀과 운동팀이 최후의 결승전에서도 상대팀에 예의를 지키며 경쟁을 초월한 연대애를 드러낸 장면은 <사이렌>이 여성주의 예능으로서 거둔 의의 뿐 아니라 다른 서바이벌쇼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독립 프로그램으로서 <사이렌>의 차별적 개성은 직업인들의 명예를 건 전쟁이라는 데 있다. 예컨대 소방팀과 운동팀의 존중 의식과 연대애는 직업인으로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운동팀은 정정당당한 승부와 동료애를 중시하는 스포츠정신과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감을 지닌 팀이다. 소방팀은 본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살아가는 직업"이라 이야기한다. 직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의 의미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회에서 직업의 공적 성격과 굳건한 신념을 드러내는 출연진들의 모습은 존경스럽기까지하다.

<사이렌>은 이러한 직업적 특성과 출연진들의 사명을 쇼의 핵심적 동력으로 삼는다. 가령 경찰팀은 특유의 수색과 수사 기질로 섬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방어기지의 약점을 노출해 제일 먼저 하차하게 된다. 경찰팀으로서는 아쉬운 성적이지만, "경찰이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인터뷰 장면은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연합 관계였던 군인팀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경호팀, 실험 정신이 강하고 공격적인 스턴트팀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쇼의 재미를 견인한 중심축인 소방팀과 군인팀의 라이벌 관계 또한 직업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을 구하고 지키는 소방팀과 적을 해치워야 하는 군인팀은 각자의 사명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많은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가 악마의 편집이나 캐릭터 부여를 통해 작위적인 갈등을 빚어낼 때, <사이렌>은 이처럼 출연자들이 각자의 투철한 직업정신을 성실하게 조명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초직군의 소수자로서 고충을 토로하던 여성들은 어느새 그 직업군을 대표하는 존재로 전환된다. 이것이야말로 <사이렌>의 가장 빛나는 성취다.

온라인 식의약 과대·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예방

| 안정희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00효소
"3일째부터 미친 듯이 빠져요, 똥배 사라짐, 10년 전 라인으로 되돌아감, 안 잠기던 바지 헐렁헐렁, 턱선 살아남"

우슬분말
"생리불순개선, 콜레스테롤감소, 신장기능 향상, 관절염 개선"

00기미엠플
"피부가 하루 만에 맑아져요, 주름살 모두 걷어내고, 바를수록 주름 펴져요. 딱 15년전으로만 돌려드릴게요"

온라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우리는 온라인 과대·과장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의 판매 시장은 인터넷 쇼핑몰 및 TV홈쇼핑을 넘어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소셜미디어, 맘카페, 블로그, 중고거래사이트 등 다변화하였다. SNS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의 과대·과장광고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알고리즘은 한 번 검색한 품목은 집요하게 계속 노출시키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킨다. 결국 과대·과장광고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반품, 환불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식의약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2019년 7,484건에서 2021년 7,979건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허위·과대·과장광고 유형

우리나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식의약품의 허위·과대·과장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표시, 광고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특정 질병(예: 알러지, 아토피피부 개선, 변비나 장트러블 개선, 위장장애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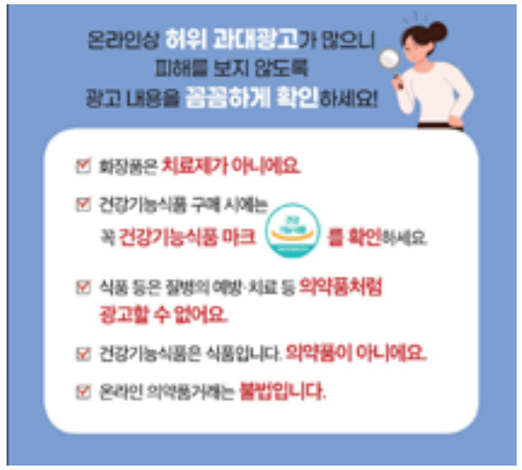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표시, 광고

의약품에 포함, 의약품을 대체,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광고,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 판매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이 해당된다.

(예: 탈모를 방지하고, 출산 후 머리 빠짐에 대박).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 기능성 오인·혼동 표시, 광고

기능성이 없는 것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해당된다. (예: 간기능 개선, 지방분해, 체중감량, 집중력 향상, 피로 회복,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가, 키가 쑥쑥 커요, 주름개선, 피부에 수분 보충, 촉촉한 피부 등),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 거짓·과장된 표시, 광고

표시·광고의 적용범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부당한 광고 문구 등이 해당된다. (예: 노폐물을 빼준다, 부종, 부기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부기에 좋은 원료들은 다 들어가 있는 "내림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

제품 이용 전후 비교 사진 및 체중 변화 등 체험기 이용한 광고,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교수 등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 사행심을 조장, 음란한 표시, 광고

식품 등의 용기·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광고,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유형이 해당된다.(예: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등)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비대면 거래에서의 소비자 역량강화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단체는 2022년에 이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소비자단체가 함께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불법유통 및 과대·과장광고를 모니터링 하였다. 조사 결과 총 5.188건을 적발하여 그 중 625건을 선별하여 개선조치를 진행하였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유통채널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가 226건이었으며, 중고거래 플랫홈, 맘카페,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이었다. 이들의 경우 광고 게시업체와 접촉이 쉽지 않았다. 단발성 혹은 게릴라성 판매방식으로 광고가 짧은 시간 게시되었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계정으로 광고하여 재접근이 어려웠으며, 대부분의 SNS 광고는 판매자가 아니라 별도의 광고대행업체가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온라인상의 과대·과장광고는 계속 다양한 유형으로 판매형태가 진화되어 모니터링, 단속이 어렵고,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련 부처의 감시체계만으로는 제재가 힘든 상황이다. 소비자가 비대면 거래에서 허위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판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감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플랫홈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된 노력도 필요하다.

나의 스무 살

| 대학·청년YWCA

2023년 마지막 청년토크는 올해 첫 성인이 되어 1년을 열심히 살아낸 스무 살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뷰로 지난 1년에 대한 짧은 소감을 싣는다. YWCA 활동을 해본 청년, YWCA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어본 청년, YWCA를 잘 모르는 청년 등 다양한 스무 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스무 살이 되면? 엄청난 어른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난 여전히 학생이라 불리는 어린이였다. 실수도 많이 하고, 밖에서는 아직까지 나를 고등학생으로 본다.
처음 해본 것 술을 마셔본 것.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주를 엄청 맛있게 먹던데 이 쓴 걸 왜 먹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내년 계획 사실 대학 입학하고 자체 공강하느라 1학년 학점이 좋지 않다. 2학년 때는 정신차리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놀 것 같다. 노는 게 불안해서 공부한 기억밖에 없다. 다른 친구들처럼 야자도 째보고, 더 재밌게 놀아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잘못 산 물건 에어팟 맥스. 헤드셋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졸업 선물 겸 입학선물로 받았는데 실제로 10번도 안 낀 것 같다.
기억나는 장소 학교. 1년만에 적응한 것 같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YWCA에서 하고 싶은 것 대학교를 가니 진지한 이야기나 사회이야기를 해보고 싶어도 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다. YWCA에서 공동체와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서울, 20살, 루루

스무 살에 대한 로망 방학이 길다는 게 가장 기대됐다. 학교도 안 가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일년에 4개월이나 된다.
힘들었던 일 인간관계. 고등학생 때와 다르게 수업을 각자 따로 듣다보니 단짝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나. 대학교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잘 산 물건 아이폰 15. 고등학생 내내 똑같은 휴대폰을 써서 성인이 되면 꼭 바꾸고 싶었다. 최신폰을 쓰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가장 잘 한 일 내 스스로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 출발 전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다녀오고 나니 너무 즐겁고 뿌듯했다.
가장 후회하는 일 CC를 한 것. 같은 과 선배와 입학한지 얼마되지 않아 연애를 했다. 금방 헤어져버렸지만 아직도 자주 마주쳐서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놀림받는 중이다.
YWCA에서 하고 싶은 것 코로나 이전에 한일YWCA협의회나 CSW같은 해외프로그램이 많았다고 들었다. 그런 곳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대전, 20살, 야끼

올해 제일 열심히 한 것 후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과를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공 공부를 해보니 나랑 맞지 않아서 1년 내내 후회했던 것 같다.
내년 계획 휴학 후 재수 또는 전과를 준비할 것 같다. 처음에는 1년이 늦어지는 게 무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빨리 결정하고 빨리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가장 자주 갔던 곳 고향. 집이랑 먼 곳으로 학교를 가게 돼서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집으로 갔던 것 같다. 역시 집이 최고다.
잘 산 물건 뭐니 뭐니 해도 맥북. 대학생이 되면 꼭 멋진 노트북을 사고 싶었다. 본때나는 맥북을 사서 너무 행복했다.
기억에 남는 사람 교수님. 우리학교는 1학년 때 담당 교수님과 짧은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전공에 대해 고민이 많은 나와 항상 진지한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처음 해본 것 테니스. 어떤 동아리를 들까 고민하다가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갔다. 친구가 반강제로 데리고 갔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취미로 꾸준하게 해볼 생각이다.
YWCA에서 하고 싶은 것 다른 지역 친구들과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

서울, 20살, 사랑

스무 살에 대한 로망 독립하는 것. 나만의 집을 꾸미고, 친구들을 마음껏 초대하고, 통금도 없는 게 가장 기대됐다.
최고의 일탈 비밀연애를 하고 있는 것. 자취를 하다보니 부모님의 걱정이 많아서 비밀연애를 하고 있다. 남자친구와 2박 3일 동안 여행간 것이 최고의 일탈이다.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지 말아야 하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만큼 책임도 많이 따르겠지만 자유로운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좋았던 일 성적을 잘 받았을 때. 공부하는 과정도, 시험치는 과정도 낯설었지만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2학기 때 장학금을 받아서 뿌듯했다.
힘들었던 일 항상 붙어다니던 친구들과 자주 보지 못하는 것. 나 혼자 먼 학교로 진학해서 친구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보지 못해서 초반에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다.
YWCA에서 하고 싶은 것 뭐든 좋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서 뭐든 기대된다.

광주, 20살, 예리

나의 스무 살 혼란의 연속. 기대를 가득 가지고 입학했던 학교가 공부도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래도 조금 적응한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장소 제주도. 가족끼리만 갔던 제주도를 친구들이랑만 가보니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후회하는 것 혼란하다는 이유로 너무 막살았다. 그동안 모아 놓은 돈도 다 쓰면서 탱자탱자 놀았던 게 조금 후회된다.
자주 한 생각 나는 졸업하면 뭐하고 살까? 4년 동안 내 평생 직장을 결정할 수 있을까?
내년 계획 군대. 빨리 갔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신청했는데 바로 영장이 날아왔다. 무섭기도 하지만 내년에 빨리 군대에 가서 인생공부를 하고 와야겠다.
기억에 남는 사람 지금 여자친구. 혼란스러웠던 나의 스무 살 생활에 기쁨을 준 존재다. 내년에 군대 가면 버림받을까봐 무섭기도 하지만 현재의 행복을 누리자!
YWCA에서 하고 싶은 것 사실 YWCA를 잘 모르지만 군대 제대 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곳인 것 같다.

대구, 20살, 푸뚱

나의 스무 살 2번째 스무 살. 나는 재수를 해서 스무 살을 2번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재수 준비를 하면서 너무 부럽고 기대했던 캠퍼스 라이프를 올 한 해 동안 경험해서 너무 행복했다.
처음 해본 것 캠퍼스 생활이다. 사실 21살이지만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기대했었다.
힘들었던 일 2년 전 찐 스무 살 때 망친 수능으로 인해 내 인생이 다 끝난 기분이라 너무 힘들었다.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입시만 준비한 나에게 재수는 너무 곤욕이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진짜 힘들었다.
최고의 일탈 친구들과 놀다가 첫 차를 타고 집에 들어 간 것. 통금이 없어지니 자유롭다.
내년 계획 휴학하고 두 달 동안 유럽여행을 갈거다. 평생의 꿈이었던 유럽여행이 너무 기대되고 설렌다. 그 전에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야지!
YWCA에서 하고 싶은 것 기후위기에 평소 관심이 많은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니 YWCA가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나도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

서울, 21살, 욜로

49개 회원YWCA 지역법인으로 전환 완료

| 조직혁신지원국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 수립과 함께 진행된 회원YWCA 재구조화 5개년 계획에 따라 4년간의 회원YWCA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49개 회원YWCA가 지역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그림 1> 연도별 지역법인화 완료 현황

2020년	7개Y	대구, 대전, 목포, 순천, 안산, 안양, 여수
2021년	7개Y	광주, 서울, 수원, 울산, 인천, 제주, 청주
2022년	9개Y	고양, 논산, 부산, 서귀포, 세종, 양산, 전주, 창원, 통영
2023년	26개Y	강릉, 거제, 광양, 군산, 김해, 남양주, 남원, 동해, 마산, 부천, 사천, 성남, 속초, 안동, 원주, 의정부, 익산, 제천, 진주, 진해, 천안, 춘천, 충주, 파주, 포항, 하남

※ 2020년초 기준 총 53개 회원YWCA 중
2개Y(경주Y, 서천Y) 자체 해산 및 청산완료,
1개Y(광명Y) 해산의결 및 해산준비중, 1개Y(평택Y) 미정

주무부처 현황

회원YWCA 재구조화에 있어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자체 현황분석과 지역사회 분석을 통해 회원YWCA의 핵심주력운동을 설정한 것이다. 핵심주력운동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권한과 추후 법인 운영의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결정되었다. 광역지자체별로 회원YWCA가 주무부처를 거의 동일하게 설정한 추세로 나타났는데 여성가족부로 주무부처를 설정한 곳이 33개 회원YWCA(67%)이고, 16개 회원YWCA(33%)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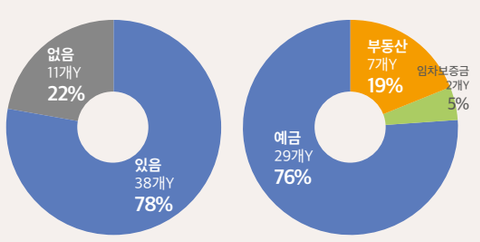
<그림2> 법인 회원YWCA 주무부처 현황

구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광역시 특별시	서울, 세종, 울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강원도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경기도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과천군포의왕, 의정부, 파주, 하남	
충청북도	청주	제천, 충주
충청남도		논산, 천안
경상북도	안동, 포항	
경상남도	거제, 김해, 마산, 사천, 양산, 진주, 진해, 창원, 통영	
전라북도		군산, 남원, 익산, 전주
전라남도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제주도	서귀포, 제주	

기본재산 설정 현황

기본재산은 주무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38개 회원YWCA(78%)는 기본재산을 설정하였고, 11개(22%) 회원YWCA는 기본재산이 없다. 기본재산이 있는 회원YWCA의 기본재산 설정 유형은 29개(76%) 회원YWCA가 예금으로 설정하였고, 7개 회원YWCA(19%)가 부동산으로 설정, 2개 회원YWCA(5%)는 임차보증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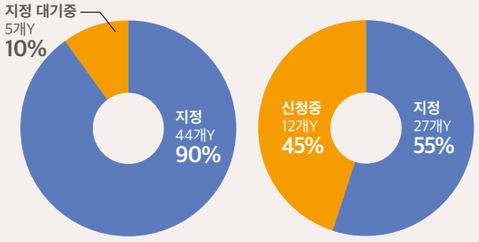
<그림3> 회원YWCA 기본재산 설정유형



공익법인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만 YWCA에 후원하는 시민들과 기관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원YWCA는 법인설립 직후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진행했고, 44개 회원YWCA(90%)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2023년 하반기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5개 회원YWCA(10%)는 2023년 4분기 공익법인 신청 후 지정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림4> 공익법인·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 지정 현황 (2023. 12. 17. 현재)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 지정 현황

법무부로부터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받으면 회의록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이고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주무관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대다수의 주무관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만큼 지정받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개 회원YWCA(55%)가 지정받았으며, 나머지 22개 회원YWCA(45%)도 지정 신청을 준비중이다.

후원회·연합회 분사무소 폐쇄

후원회 명의였던 회원YWCA 재산은 부동산 매각 추진이나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법인 회원YWCA로 이전했다. 부속시설 역시 지자체와 협의하며 법인 회원YWCA로 이관하고 있다. 재산이전과 부속시설 이관이 완료된 회원YWCA는 최종적으로 후원회·연합회의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있는데 현재 15개 회원YWCA(30%)가 분사무소 폐쇄를 완료했다.

49개 회원YWCA 지역법인화 완료는 재구조화를 위해 달려온 회원YWCA의 노력과 연합회의 지원, 그리고 회원YWCA 재구조화 과정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값진 수고의 결과이다. 지역법인화라는 체제의 전환을 이룬 회원YWCA가 기독여성시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더욱 힘있게 달리기 위한 체질의 전환도 이루어가길 소망한다.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단 소감

김일석 위원

•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계책무성 자문위원 • 법학박사

이번 한국YWCA의 재구조화는 한국 공익법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일 것입니다. 누구도 시도한 적 없으며, 제대로 된 법률의 도움 없이 단체 스스로가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YWCA는 100년이 된 단체이면서, 재구조화를 통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신생법인기도 합니다. 각 회원YWCA는 처음 하는 업무가 많은 만큼 유의할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사적인 한국YWCA 재구조화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류홍번 위원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100년이 넘는 전국조직에서 조직과 자산을 분산하는 재구조화는 변화를 넘어선 혁신으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4년 동안 전 조직 역량이 힘을 모으고, 숱한 난관을 넘어서며, 변화를 완성해 가는 과정은 감동과 존경 그 자체입니다. 형식적인 재구조화를 넘어 운동성과 건강성을 담으려 한 노력도 인상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사회는 시민단체들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이나 변화를 매우 제약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실무적 부담, 세금 등 비용부담, 조직과 활동 연속성 법적 미보장 등. 그동안 조직변화나 혁신을 시도했던 많은 단체들이 중도 포기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서도 만들어낸 재구조화 과정은 한국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의 제도적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냈고, 제도 개선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아마 한국 시민사회 조직변화에서 중요한 역사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미란 위원

•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 • 한국소비자시민모임 회장

회원YWCA 재구조화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모험이었습니다. 연합회와 회원YWCA가 함께 이 역사적인 도전을 감당한 것이 자랑스럽고 그 길에 자문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더 굳건한 믿음과 연대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훈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민법이 만들어지기 전 1922년부터 활동을 해 왔던 YWCA와 관련하여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한 현장에서 청년운동, 여성운동, 기독교운동, 회원운동, 국제운동체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원YWCA 재구조화는 YWCA의 새로운 100년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법인으로 회원YWCA가 되었지만, YWCA라는 이름으로 국내,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데 법적 토대를 탄탄히 해서 더욱 발전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송호영 위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 한국사법학회 부회장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태기로 흙을 퍼서 산을 옮긴다는 것인데, YWCA재구조화 사업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도저히 넘기 힘든 거대한 법적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힘들게 이룩한 회원YWCA의 법인화작업에 대한 결실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구조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상·행정상 많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를 계기로 향후 민법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희숙 위원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YWCA 설립 100주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재구조화 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분할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후진적인 제도적 환경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가며 계획한 바를 이루어낸 성과는 조직 변화뿐 아니라 시민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YWCA를 이어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조직 변화를 꾀하고, 이러한 수요가 제도 변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퍼스트펭귄의 길을 걷는 YWCA에 찬사를 보내며 자문과 응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순문 위원

•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 고문

YWCA가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것에 대하여 먼저 축하인사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상 비영리법인의 분할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 회원YWCA를 독립시키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치셨을 것으로 압니다. 실무자 분들께서 겪으신 현장 경험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영리 분야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값진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구성된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단 운영이 2024년부터는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를 추가 구성하여 YWCA 공익법인 운영 자문단(가칭)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회원YWCA 순례기도회에서 확인한 정의, 평화, 생명의 YWCA 정신

|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회원YWCA 기도순례를 시작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43:19)

전국의 52개 YWCA를 순례하여 직접 얼굴을 보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2021년 초에 일어난 연합회 대자보 사건은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가려고 하던 조직에 박차를 가했다. 모든 자원, 실무활동가들은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사역하기 위한 바른 정보 공유와 깊은 소통이 더욱 절실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모두 다시 정의로운 출발선 앞에 새로운 각오로 섰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늘 상처가 수반되듯이, 우리도 많이 아픈 시간을 마주해야 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을 오전 금식하며 매일 아침 7층 기도실에서 기도했다. 홀로 하던 기도 자리에 점차 실무활동가들이 번갈아 함께 해주었고, 누구와 함께 기도하든 우리는 모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은혜로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기도자리를 찾았다. 기도회 50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었다.

순례를 다니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2:46)

코비드19 때문에 모일 수도, 만날 수 없는 전국의 52개 회원YWCA를 직접 찾아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성희 원장과 의논하여 8월 30일, 파주YWCA와 고양YWCA로부터 기도순례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 이후부터는 9월 실행위원회에서 인준되는 신임 구정혜 사무총장과 함께 기도순례를 다니기로 했다. 남한 8도 곳곳에 펴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며 지역을 살리고 있는 Y활동가들을 만나기 시작한 순례는 2년 여 만에 다시 파주Y에 모여 폐회를 하기까지 은혜와 벅찬 감동의 연속이었다. 당시, 곧 100주년을 맞는 연합회의 신임 사무총장을 직접 소개하고, 백년 YWCA의 개혁을 위한 95개 논제를 함께 읽고 감동을 나누고, 회원YWCA의 기도제목을 직접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한 지역 청년을 만나 격려하는 순례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권면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다.

순례를 마치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4:11)

순례에서 만난 사랑하는 52개 YWCA들! 든든한 건물에 운영도 아주 탄탄한 곳들도 있었고, 다른 단체와 공간을 나눠 사용하며 활동하고 있는 어려운 Y들도 있었다. 하루에 두, 세 곳을 순례하느라, 순간 다리가 풀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피가 나도록 까지고 바지가 찢어졌던 기억, 아팠던 만큼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40세가 막 넘은 활동가를 청년대표라 모시고 나온 Y에서는 더 많은 청년 활동가들을 찾기 위한 기도를 했던 기억도 소중하다. 크기에 상관없이 기도제목이 없는 Y는 한 곳도 없었다.

이제 순례기도회를 마치며 돌아보니, 전국 회원YWCA들에 공통으로 흐르는 운동의 정신은 역시, 정의, 평화, 생명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삶에 실천하며, 이 한반도 도서산간벽지에 하나님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우리 한국YWCA의 목적문에 담긴 사명감이었다. 그리고 이 사명감으로 활동하는 "Y 사람"들은 모두 귀하다. 바라건대, 살아생전에 평화 통일이 된다면, 꼭 북한의 5개 지역(선천, 안주, 원산, 평양, 함흥) Y를 찾아 순례하며 그 지역 청년들을 만나, 손잡고 기도하고 싶다.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 순례 길에 동행해준 사랑하는 구정혜 사무총장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중에도 순례자를 반겨준 전국의 회원 YWCA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①거제YWCA ②남원YWCA ③마산YWCA ④서귀포YWCA ⑤서울YWCA ⑥수원YWCA ⑦안동YWCA ⑧안양YWCA ⑨원주YWCA

⑩인천YWCA ⑪제주YWCA ⑫제천YWCA ⑬진해YWCA ⑭창원YWCA ⑮충주YWCA ⑯통영YWCA ⑰포항YWCA ⑱파주·고양YWCA

제2기 회원YWCA 릴레이 순례기도회를 마무리하며

| 구정혜
(사)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제2기 회원YWCA 릴레이 순례기도회는 2022년 3월 7일 수원YWCA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10월 30일, 순례기도회의 출발지인 파주YWCA, 고양YWCA와 함께한 자리에서 마무리 했다. 1기 순례기도회를 2021년 8월 30일 시작하여 12월 2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35개의 회원YWCA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반면, 2기 기도회는 1년 8개월에 걸쳐 18개 YWCA를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총 2년 2개월의 긴 순례였다. 마지막 순례기도회는 파주YWCA 회관에서 고양YWCA와 파주YWCA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95개 논제을 읽고 소감을 나눈 후 "평화통일을 꿈꾸며 우리 삶에 수많은 이념적 갈등과 거짓평화를 낳고 있는 분쟁과 전쟁을 YWCA와 청년세대가 함께 끝내고, 평화와 화해의 주체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원YWCA가 사회, 정치, 경제적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YWCA의 목적 아래 사랑과 신실함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기독여성시민운동단체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다. 또한 파주YWCA와 고양YWCA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끝을 맺었다.

2기 순례를 통해 청년을 포함하여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120여명을 만날 수 있었다. 1기와 합하면 원영희 회장님과 나는 총 300여명의 회원Y 활동가를 현장에서 만난 것이다. 그들은 이 시간이 "Y활동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 Y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각성하는 시간,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시간, Y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목적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 초심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했다. 순례기도회를 기다리면서 이사들과 실무활동가와 함께 매일 95개 논제를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필사하면서 준비한 Y도 있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

모두의 공통된 기도제목은 회원Y가 기독여성시민운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서고 활동가와 재정, 청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A4 한두 장을 가득채운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활동하는 회원Y를 응원함과 동시에 Y의 저력과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연합회 기도순례자를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YWCA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들의 처음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이끌어주신 원영희 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순례기도회가 이어지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끝을 보이고, 다시 활발한 회원활동을 기대하게 되었고, 49개 회원YWCA가 지자체에서 인정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회원YWCA의 활동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릴레이 순례기도회는 마무리되었지만, 우리 안에서 기도의 끈은 끊임없이 이어져, 연합회와 회원YWCA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보고 만나고 사랑하자 in 수라

| 김수현
(사)고양YWCA 간사

11월 30일(목) 기후정의 기도회로 수라갯벌을 찾은 고양YWCA 활동가들.

스크린으로 보게 된 '수라'_ 마음에 담다

처음 '수라' 다큐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듣기에도 생소한 '관객 주도, 관객 참여 배급으로 100개의 극장을 연다'는 프로젝트 아래 열리게 된 극장 중 한 곳에서 이 영화를 보았다. 수라는 1991년도에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갯벌이다. 이 영화가 단순히 갯벌 훼손의 심각성을 각성시키는 다큐였다면, 자연과 생태계 보호를 담는 일반적인 다큐였다면 이 영화를 보고 이토록 마음이 일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의 예상과 달리,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나는 수라가 품고 있는 생명들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고,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생명의 보고인 수라를 지키고자 싸워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율하였다.

새만금생태시민조사단과 영화속 주인공 오동필 단장을 통해 보게 된 수라는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들의 심정과 말을 대변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바닷물을 기다리다가 빗물을 바닷물로 착각하여 대량학살을 당한 백합조개의 억울함을 전해주었고, 이미 갯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땅에서 삐죽 손을 내민 흰발농게의 도움 요청을 전해주었다. 자신들의 쉼터를 되찾고 싶은 도요새, 검은머리갈매기의 아름다운 비행을 보여주었다. 생명은 생명으로 만나야 함을 다시금 알려 준 영화 수라의 교훈과 감동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몇 날이 지나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갈수록 짙어져 갔다.

절대 혼자만 보고 그칠 수 없는 '수라'_ 함께 보다.

이런 감동의 여운은 고양YWCA 활동가들을 움직이게 했다. 잼버리 대회를 통해 다시금 주목받게 된 장소이자 신공항 건설 계획 예정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 우리 눈 앞에 와 있는 새만금 갯벌 수라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자세히 알아야 했다. 그리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다. 오동필 단장의 표현에 따른 '아

고양YWCA는 수라를 알리기 위해 11월 24일(금)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어울림영화관에서 공동체 상영을 진행했다.

름다운 것들을 본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20년간 새만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인 수라를 지키기 위해 한 번도 이 지루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을 보며, 기후위기시대를 사는 기후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도전을 받았다. 새만금생태시민조사단은 수라 곁에서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며 지켰다면, 그곳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고양시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알리는 것. 이 영화를 통해 아름답고도 위태로운 생명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수라를 지키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겠다 싶다.

그래서 고양YWCA는 고양시 내의 학부모회, 마을공동체, 어린이도서연구회, 교회들과 함께 <수라> 공동체 상영을 기획하고 제안하였고 11월 24일(금)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어울림영화관'에서 공동체 상영을 하였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라를 보고자 찾아온 85명의 시민들이 좌석을 꽉 채웠다. 영화를 보는 동안, 매립으로 생계터전을 잃고 공공근로를 하며 살아가는 새만금 어민들의 이야기에 함께 울분을 터뜨리며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빗물이 바닷물인 줄 알고 바깥으로 나왔다가 떼죽음을 당한 조개들의 모습이 보이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흘러 나왔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법정보호종 생물들의 움직임과 천연기념물 새의 비행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두운 극장 안에서 소리로 공감대를 이루며 연결되고 있었다.

영화 상영 후에는 환경동화 작가이자 새만금생태시민조사단으로 20년간 활동해온 이성실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신공항 건설계획의 상황과 영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수라지킴이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것을 본 죄인이 되어, 신공항 건설계획을 무산시켜달라는 엽서를 썼고,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쓴 52장의 엽서는 12월 4일(월) 환경부장관 앞으로 전송됐다.

본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수라'_만나러 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서 활동 중인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한 번이라도 수라에 직접 와서 이 생명들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매립을 운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말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 찾아왔다. YWCA와 함께하는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이 올해 마지막 현장예배로 11월 30일(목) 수라갯벌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기후정의 기도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군산의 날씨는 흐렸고, 바람도 드셌고 작은 눈발이 날릴 정도로 추웠다. 그러나 직접 본 '수라'는 갯벌의 모습을 많이

YWCA와 함께하는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현장예배가 수라갯벌에서 열렸다.

잃어버렸음에도 많은 염생식물이 피어있는 습지로서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뽐내고 있었다. 연합회와 군산, 남원, 전주, 익산의 회원YWCA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수라 갯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미군기지의 전투기 이륙 굉음에 몇 번이고 말이 끊기고 귀가 먹먹해졌다. 이곳에 사는 철새들의 안위가 심히 걱정이 되는 현장이었다. 전북녹색연합 김지은 활동가의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이미 있는 군산공항도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매해 약 3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또 신공항이 필요한 것인가?

그 내막에는 미군이 있다. 미군은 더 오래 전부터 수라갯벌에 눈독을 들여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시설 확장을 위해 공항 활주로가 필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보고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매립은 미완성 상태이고 현재 예산도 중단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군산 시장과 몇몇 시의원들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탐욕과 군산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를 약속하는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 수라갯벌의 매립은 기후위기 시대에도 전혀 맞지 않다. 이산화탄소의 흡수율이 보통 식물보다 4배나 높다는 염생식물들이 가득 핀 갯벌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탄소를 흡수하며 지구의 온도 상승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난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수라'_지켜야 한다

이런 답답한 현실과 별개로, 현장탐방 시간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만난 수라 갯벌의 아름다움은 미안할 정도로 황홀했다. 황량해 보이고 흐린 추운 겨울날씨에도 칠면초와 갯개미취, 갈대가 가득 핀 수라 갯벌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하늘 위로 이따금씩 떼 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이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도요새 떼의 군무를 상상하게 했다.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의 수라는 어떤 모습일까? 불행 중 다행히도 영화 수라 개봉 이후, 수라 갯벌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영화를 본 시민들은 그냥 본 것에 그치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 나처럼 말이다. 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아마도 한 번 다녀간 발걸음은 한 번만으로 그치지 않게 될 것 같다.

영화 마지막에 오동필 단장은 '갯벌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갯벌로 돌아갈 거예요.'라는 말로 우리를 희망으로 초대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수라>영화를 보고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수라'라는 이름을 불러주며, 이곳에 찾아오면 좋겠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릴 수 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발걸음은 곧 나와 너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 수라를 지키는 생명의 물결에 YWCA도 계속 함께 하기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 글·편집실

“국회와 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라”

한국YWCA연합회가 11월 15일(수) 오후 1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6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일본정부에게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법적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에 반대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롯해 각종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날 수요시위에서는 니시야마 나오히로(오사카 유니온 네트워크) 대표가 연대발언에 나서고 이용수 피해생존자도 특별발언으로 함께했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90년대부터 일본YWCA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등 양국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공동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평화·안보의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내년 2월에는 일본YWCA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수요시위도 공동 주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주간보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며 한반도 평화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개탄했다. 또한 “권력화된 역사부정 세력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 법한 언론 탄압·노조 탄압·시민단체 탄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끝끝내 이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미래세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길 부탁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한빛, 유에스더, 홍수진(이상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와 니시야마 니오히로(오사카 유니온 네트워크) 대표는 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연대의 뜻을 표했다.

이한빛 활동가는 연대발언에서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명백한 전시 성폭력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군성노예제가 명백한 전시 성폭력임에도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호와 지원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유에스더 활동가는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 한 채 핵발전 확산에 주력하는 양국 현실을 ‘총과 포탄만 없을 뿐 힘 있는 국가들에 의한 느린 핵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국가 간의 권력 싸움에서 희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있는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홍수진 활동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 여성과 아이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과 살인에 쉽게 노출됨을 지적했다. 홍수진 활동가는 이러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여성폭력이자 전쟁범죄, 국가폭력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 중 여성폭력의 문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니시야마 나오히로(오사카 유니온 네트워크) 대표는 “기시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 정부의 진지한 사죄와 배상을 얻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정의기억연대 네트워크와의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별발언에 나선 이용수 피해생존자는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연대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말 하는 것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다. 그 (모든) 말이 봉오리가 돼서 활짝 피어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한다”며 연대에 대한 감사 인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국YWCA는 집회 마지막 순서인 성명서 낭독을 통해 “삼십여 년간 이 자리에서 1,622회 외침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사죄와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전시 성폭력에 대한 부정과 정당화를 도모해왔다”며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전 세계의 전시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하루속히 선행되어야 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 더 나아가 국가적 분쟁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임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공식 사죄 및 배상 ▲역사 부정 세력들의 역사 왜곡 중단 및 사죄 ▲국회와 우리정부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및 피해자들 보호 등을 촉구했다.

성명서 낭독은 고양YWCA 김혜경 회장, 이경애 사무총장, 김수현 활동가와 연합회 이예림 활동가가 맡았다. 이용수 피해생존자도 특별발언으로 함께했다.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여성,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이진희 대표, 젊은지도자상 김보미 변호사, 특별상 한분영 대표

| 박효정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23일(목) 서울YWCA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상은 발달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운영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과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이진희 대표((주)베어베터)가, 젊은지도자상은 기후위기, 환경, 난민, 여성, 인권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고 지원하는 법률활동을 펼쳐온 김보미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특별상은 한국인의 해외 입양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입양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한분영 대표(덴마트한국인진상규명그룹, 이하 DKRG)가 선정되었다.

왼쪽으로부터 원영희 회장, 김보미 변호사, 이진희 대표, 한분영 대표, 유명순 행장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십을 발굴하여 알림으로써, 차세대 여성지도자에게 도전 의식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2003년 제정되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은 그간 48명의 여성지도자를 발굴하여 격려해왔다.

대상 베어베터 이진희 공동대표, 장애인 중심 사회적기업 운영,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

대상을 수상한 베어베터 이진희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이나 훈련 뿐 아니라,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2012년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설립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장애인 직원을 3.1%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과 '연계 고용'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발달장애 직원 5명으로 시작한 베어베터는 현재 280여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진희 대표는 고용을 넘어서 제과, 화훼, 인쇄, 커피 제조 영역에서 직무와 작업과정을 쉽게 재구성하고 정밀하게 설계하여 발달장애인이 업무에 숙련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렇게 베어베터에서 훈련된 발달장애 직원을 일반기업으로 이직시키기도 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였고, 연계고용으로 유지한 탄탄한 거래처를 통해 흑자를 내기도 하였다. 이진희 대표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을 목표로 이들이 편견을 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젊은지도자상 김보미 변호사, 기후와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법률 활동 지속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김보미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변호사로 일하며 기후위기와 환경, 난민, 여성 인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김보미 변호사는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기후활동가가 기업으로부터 형법적, 민법적 책임을 묻는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활동가들의 시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민사 기각판결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생산된 의류가 재고 상태로 폐기되거나 소각되는 의류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제화를 요구하고, 인권 문제 해결과 기후 위기에 저항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별상 DKRG 한분영 공동대표, 한국 사회 입양 과정의 문제를 공론화, 해외 입양인의 권리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

특별상을 수상한 DKRG 한분영 공동대표는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후 2002년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했다.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개선 필요성과 입양인들의 정보 접근권리 보장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다양한 해외 입양인 권리 개선 활동을 해왔다. 한분영 대표는 300여 명의 해외 입양인과 함께 한국 정부에 불법 입양 및 인권 침해 실태조사와 진실규명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가 인권의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국내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상 수상소감
이진희 대표

귀한 상을 주시고, 따뜻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WCA가 여성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긴 시간 노력해온 단체이기에 베어베터를 알아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베어베터를 통해 점점 인식이 바뀌고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일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나간 발달장애 직원과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온 동료 직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만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깜깜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베어베터라는 존재가 저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진 후배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등대나 이정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더이상 베어베터가 특별한 회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만의 속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젊은 지도자상 수상소감
김보미 변호사

변호사는 기후운동에서 시민단체의 입법 과정에 함께하고, 활동가의 길고 치열한 환경운동 과정에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런 일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고, 언제나 기후운동의 주인공은 활동가와 시민들이라 생각합니다. 기후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기후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한 기후운동 과정에서 소송의 승소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물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비상상황에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든든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운동 과정에서 제가 맡은 몫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소감
한분영 대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포기하지 않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조금이라도 해외입양인과 가족들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입양보내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입양 때문에 헤어진 가족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면서 상상할 수 없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사회변화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을 위해, 더불어 해외입양인 뿐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 세상의 큰 변화 가져온다

| 홍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조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 4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 경진대회가 2023년 11월 18일(토)에 페이지명동에서 개최되었다.

제 4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이하 청만세)은 YWCA 중점운동인 성평등, 기후위기, 평화통일을 주제로 공모하였으며, 해당 주제를 금융경제와 접목시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서류 심사와 오리엔테이션, 중간보고회를 거쳐 4팀, 총 1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청만세의 첫 프로그램인 9월 16일(토)에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한국YWCA연합회 소개, 연합회 함희경 씽크머니 자문위원장의 환영인사, 참가팀과 팀 별 멘토 소개 및 멘토와의 만남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약 두 달간 팀별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더 세밀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로 발전시켰다.

가장 기억해야 할 순간 팀의 평화소녀상 만들기 키트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났던 본 대회 현장은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본 대회는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다. 구정혜 상임이사는 "청소년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회사 이후 본격적인 경진대회가 시작되었다. 각 팀들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정해진 발표 순서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였다.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가장 기억해야 할 순간(이하 가기순) 팀은 위안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낱말 퍼즐과 평화 소녀상 만들기 페이퍼토이 키트를 제작하였다.

노로가 했수다 팀의 그린 캘린더

'노로가 했수다' 팀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지구를 병들게 하는 습관을 해결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 그린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푸른장미 팀은 '일회용품 저감 디자인을 통한 탄소 감소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일회용품 사용으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화되는지를 청소년 설문조사 및 다양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내

용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 QR코드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QR코드는 플라스틱이나 일상의 일회용품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물품이나 장소에 부착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포항중앙고등학교 팀의 기후변화 큐알코드 책자

마지막으로 포항중앙고등학교 팀은 'QR코드를 활용한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책자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보존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재미있는 퀴즈로 제작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후에는 두 달 동안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각 팀 멘토들의 따뜻한 격려사가 진행되었다. 멘토로 함께했던 메리킹 강륜아 대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작은 생각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며 이 자리까지 온 모두를 응원한다"라고 언급했다.

멘토 격려사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 최종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팀이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은 '평화소녀상 입체모형 및 QR낱말 퍼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가장 기억해야 할 순간> 팀, 우수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캘린더 프로젝트'를 진행한 <노루가 했수다>팀과 'QR 코드를 활용한 기후변화 관련 환경 책자' 를 제작한 <포항중앙고등학교> 팀, 장려상은 '일회용품 저감 디자인을 통한 탄소 감소' 프로젝트를 진행한 <푸른장미>팀이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장 기억해야 할 순간 팀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올바르게 직시함으로써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빡빡한 학사일정과 여러 활동으로 바쁜 가운데에 학업 외에 다른 관심사를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청만세에 참가한 청소년 모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라 생각한다.

민법과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 되도록 제도 보완해야

| 임지혜
쿠키뉴스 기자

'100년 역사' YWCA가 신규 법인?… 공익법인 활성화 걸림돌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민법과 행정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인에 대한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60여 년간 민법이 유지되는 동안, 법인 행정은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따라 처리됐다. 세상이 변하면서 사회단체, 모임은 늘어가는데, 원활한 공익법인 설립과 활성화의 걸림돌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YWCA연합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쿠키뉴스가 주관했다.

YWCA "공익법인 전환 무관하게 기존 활동 인정해야"

이날 YWCA는 지난 2020년부터 3년여간 49개 지역법인을 설립하면서 경험한 공익법인 관련 현행 법 제도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YWCA는 101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제도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사회복지법인 복지사업단,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라는 3개 중앙법인의 형태가 됐다.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은 YWCA의 재구조화 시도에 대해 "지자체에 맞게 지역 YWCA가 특성화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등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분사무소 권한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의 법인으로 지침을 맞춰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로 있던 지역 YWCA를 법인화하고 재산과 종사자 인사 등 자치적인 부분을 명확히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제도상으로는 (공익법인) 분할이라는 게 없어서 분사무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하나하나 이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박동순 국장은 "임의단체인 공익활동 조직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법인 설립으로 해석해 그동안 단체가 오랜 기간 진행했던 사업의 실적, 성과, 종사자 장기근속 실적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마다 다른 지침을 일원화하고, 법인 전환 시점과 상관없이 기존 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YWCA 지역 법인화 과정은 마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 같았다"며 "YWCA가 경험한 사례는 향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분할·설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65년 전 민법에 발목 잡힌 공익법인

공익법인 설립과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은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에 규정돼 있다. 65년간 그대로다. 공익법인의 허가주의, 합병·분할 조항 신설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합병·분할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모되는 행정적인 부담도 크다.

민법 개정 등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통제' 중심에서 '활성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저출생, 양극화, 노인 빈곤 등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 공익법인은 허가주의라 설립이 어렵고, 관리는 부실하다. 주무부처 관리부서와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약해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류홍번 위원장은 "기부금품 등 비영리조직 관련 부정비리 사고는 이러한 관리 부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인가주의를 통해 설립은 쉽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민법을 통한 공익법인 인가주의 전환과 합병·분할 조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사실상 허가제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가주의 도입을 전제로 하면 합병·분할계획서도 주무관청 인가가 필수적"이라며 "실무 관점에서는 주무관청제와 합병·분할제가 함께 운영됐을 때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에 관한 통일적

행정을 위해 '주무관청제'를 폐지하고 '공익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면서도 "비법인도 법안에 준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합병·분할 사안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석수민 검사는 "민법 현대화를 위해 지난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제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관한 각 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선으로 '휴면' 공익법인 구조조정·활성화해야"

세법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공익법인 세무 관계자는 분할·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공익법인에 세법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구조조정을 할 때 세금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청산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분할 시 비영리법인 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따지지 않는다"면서 "비영리법인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반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평가차익 과세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에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세무 관련 관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공익법인은 지난 1975년부터 규제해 온 제도들 때문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공익법인은 돈을 벌어 비영리 목적에 쓰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다. 소득 중 80%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으니, 사실상 직접사업과 수익사업이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공익에 쓰는데, 왜 세금 감면이 되지 않는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영리법인은 5만 3918개에 달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업 운영을 포기한 휴면상태 법인이 대다수라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그는"(비영리법인 중) 지난 1970년대 만들어져 재산 상황이 1억원 정도인 곳들이 75% 정도다. 합병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법인이 이렇게 많은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통해 휴면상태의 비영리 법인을 해산하고 통합된 관리를 통해 사업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소속 변영선 회계사도 "영리법인의 합병이나 분할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비영리법인에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한 법률적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구조조정의 방법, 절차, 요건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변경 사안에 대한 과세거래 판단 △공익법인 기부 시 장부가액 이전으로 인한 과세 이연 △퇴직 처리로 인한 불이익 등을 현재 세법상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선 다양한 우려를 지우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당국은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야 (공익법인 세제 지원이) 한 발짝 나갈 수 있다"며 "조세회피 가능성과 세수여건이 어려운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위해 공익법인의 실제 애로 사항이 정책당국에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인수 월드비전 경영지원본부장,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석수민 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션2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김문건 기재부 법인세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앞으로도 여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YWCA가 협조해달라"

| 글·편집실

대상을 수상한 KBS청주 '양백의 소녀' 팀이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연출을 맡은 박송이PD, 출연자 이명순 님, 심명옥 님.

제27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이하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이 서울시 중구 한국YWCA연합회 회관(페이지 명동) 4층 A스페이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KBS 청주 특별기획 '양백의 소녀들'(KBS 청주)에게 수여됐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드라마 '남남'(Genie TV)에게, 생명 부문 우수상에는 KBS 창사 50주년 대기획 '지구 위 블랙박스'(KBS)에게 돌아갔다.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에는 '어른 김장하'(MBC경남)가, 청년 부문 우수상에는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다'(씨리얼)가 선정됐다.

김선영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심사위원은 "각 주제의 적합성과 구현의 완성도를 유심히 살피되, 대상은 좀 더 폭넓게 시대와 사회를 조망하는 시선에 점수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심사기준은 주제의식과 참신성, 작품성

제27회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은 9월 초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9월 11일부터 작품 추천을 받았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방영된 TV프로그램과 뉴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성평등 ▲생명 ▲정의·평화 ▲청년 부문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총 60편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Genie TV 오리지널 드라마 '남남' 팀과 시상자로 나선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생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KBS '지구 위 블랙박스' 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MBC경남의 '어른 김장하' 팀.

청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씨리얼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다' 팀.

올해 신설된 젠더 미디어 특별상을 수상한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FLAT) 팀.

은 9명의 전문 심사위원의 서류심사를 거친 뒤 2차 영상심사 작품으로 선정됐다. 각 부문 4~5편씩 총 17편이 뽑혔다. 2차 영상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외에 청중투표단에 신청한 시민 심사위원단 41명이 함께했다. 전문심사위원과 시민심사위원은 모든 작품 시청을 소화했고, 11월 22일 마침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은주 심사위원장은 심사 경과를 설명한 후 수상작 관계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심사위원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심사 소감을 밝힌 이지영 청년심사위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훌륭한 미디어콘텐츠를 관람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1970년대 말 여공들의 생생한 목소리 담은 '양백의 소녀들' 대상 수상

대상을 수상한 '양백의 소녀들'은 1970년대 말 청주 대농방직공장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학교에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당시 기업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학교는 정부와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해 설립한 학교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생계부양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십대 여성들에게는 유일하게 학업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은 '양백의 소녀들'이 식민지산업화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여성노동 착취의 역사를 조명하면서도 그 이면에서 일과 배움의 양립을 통한 여성들의 자긍심과 자기 주도적 삶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한 지점에 유의미하다고 평가해 본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양백의 소녀들의 박송이 PD는 "출연자들을 섭외할 때 걱정하지 않게 잘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출연자 이명순 님과 심명옥 님도 참석해 소감을 전했다. 이명순 님은 "처음 KBS에서 섭외 왔을 때 자녀들이 내가 대학 졸업장 있는 것만 알지 내 과거에 대해서 잘 몰라 인터뷰에 응하는 걸 많이 망설였다"면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했다. 지금 상장을 받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살래요.'라고 한 말이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세례를 받았다.

심명옥 님도 "지지배로 태어나 중학교도 못 간 소녀가 세 아이의 할머니가 됐다"면서 "이 방송 덕에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 친구들도 만났다. 앞으로도 여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KBS와 YWCA가 더 협조해 줬으면 한다"며 유쾌한 압박을 KBS와 YWCA에게 선사했다.

다른 시선, 독창성으로 우리 사회 다양성 이야기한 우수상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Genie TV 오리지널 드라마 '남남'에게 돌아갔다. 드라마 남남은 가부장제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다양한 관계를 담아낸 가족 드라마라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남남을 연출한 이민우 감독은 "작지만 가볍지 않은 이야기였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은 것 같다."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은미와 진희(주인공 모녀)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KBS 창사 50주년 대기획 '지구 위 블랙박스'가 선정됐다. 지구 위 블랙박스는 기후정의의 메시지를 참신한 형식 실험으로 풀어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구민정 PD는 "지구 위 블랙박스는 기후위기 개론서처럼 쉽게 기후위기 문제에 다가가게 하고자 만든 작품이다"며 "작품을 기획·촬영·편집할 때마다 탄소 배출을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후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 방송 제작 후에도 이를 발굴해 상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2023년 1월 1일 MBC경남 방영 이후 '어른 김장하 현상'까지 일으켰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어른 김장하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미덕을 일깨웠다'는 부분에서 수상작으로 정해졌다. 연출을 맡은 김현지 감독은 "김장하 선생의 삶의 태도에 공감하고 지지해줘 감사하다"면서 20~30대 젊은 층들이 김장하 선생의 모습에 열광하는 것에 대해 "각자도생 시대라고 해서 점점 자신을 몰아세우며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인간의 선의를 믿고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나를 보여줘도 된다, 나를 내어줘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 부문 우수상은 씨리얼의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다' 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다' 는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의 시선'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전서영 PD는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마치 그 길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것처럼 소위 성공 루트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며 "씨리얼은 다양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고, 이 부분이 대중들에게 와 닿아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이 말하는 여성서사 저장소 '플랫' 특별상 수상

올해 신설된 젠더 미디어 특별상에는 경향신문의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FLAT)'이 선정됐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이후 여성 인권 및 젠더 이슈들이 급격하게 사회의제화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파편화되고 가려져 있다. 플랫은 '여성서사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여성서사를 드러내고 잇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생산해 성평등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플랫의 임아영 팀장은 "경향신문 내부에 플랫을 지원하는 많은 여성 기자들이 있다. 그 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때까지 플랫은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본문 : 누가복음 2장 8-20절

| 이진아
일산나들목교회 목사

평화가 아득한 2023년

설교를 준비하며, 올해는 메리(Merry)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새드(Sad) 크리스마스라 부르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일본의 핵폐수 방류, 남북의 긴장 고조. 10.29 참사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도 여전합니다. 지난 달 제가 사는 일산에서 고양YWCA 주관으로 새만금에 관한 영화 <수라>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새만금 사업인지, 보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그래도 평화로우셨나요? 제 주변은 갑작스런 죽음, 질병, 실직,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 그런지 평화가 낯설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천년 전, 팍스 로마나(Pax Romana)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2천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2:1에서 그 때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고 언급합니다. 로마의 시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를 시작으로 서기 1-2세기 고대 지중해에서 로마가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정치와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과 예술의 번영을 이끌며 위대한 로마제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Son of God), 주(Lord), 구원자(Redeemer), 구세주(Savior) 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그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Evangelia)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였기에 전쟁과 폭력이 수반되었습니다. 로마의 승리는 곧 패자들과 패배국에는 큰 재앙이 되어 살육과 수탈,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타키투스라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가 그들은 '제국'이라는 미명 하에 폭력과 강도와 약탈을 일삼았으며,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Tacitus, Agricola 30)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시대, 아우구스투스라는 제국의 황제가 구세주라 불리고 그의 통치가 복음으로 여겨졌던 때에, 누가는 천사들의 말을 빌어 전혀 다른 복음을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전합니다. 베들레헴은 위대한 다윗왕의 고향이지만, 예루살렘에 비하면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아람어로 푸줏간을 뜻하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양과 염소를 치며 생계를 유지했던 목자들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산데다, 나쁜 직업으로 평판까지 나서,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던 불가촉천민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로마 황제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영광과 찬양을 보고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기피대상인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 부르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뒤에 목자들이 달려가 만난 구주라는 분은 구유에 누워 있는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들이 잠시 봤던 천사와 하늘의 영광은 무척이나 황홀했겠지만, 현실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동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무력한 영광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 로마의 힘과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체감하며 살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목자들의 증언은 우습고 쓸모없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를 향한 두길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역사는 2천 년이 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사라졌지만, 영국의 평화(Pax Britannica), 미국의 평화(Pax Americana), 중국의 평화(Pax Sinica)를 말하며 강대국들은 팍스 로마나의 재현을 도모합니다. 이 제국의 평화를 추구하고 유지하려면 돈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1세기 로마 사회의 10%의 지배 계층이 80%의 부를 소유했다는데, 지금은 전세계 1% 수퍼리치 재산이 나머지 99%보다 많다고 하니, 빈부격차로 보면 세상은 더 안좋아졌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개인과 집단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자신이 더 많은 힘과 재력을 가진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하고, 무한경쟁과 갈등과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돈과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과 힘이 없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 애쓰며, 부실하고 허약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고, 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래도 내 형편이 더 낫다는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한다는 말에는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야, 실패할거야, 평화를 잃어버릴거야 라는 말들이 숨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인인 인간은 조건적이고 불안한 평화, 힘이 없으면 약해지고 사라지는 평화 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화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받던 목자들을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나주셨고, 참 평화의 증인으로 그들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평화, 세상이 모르는 평화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궤적을 달리하는 두 평화가 이 세상에 공존합니다. 제국의 힘으로 유지되었던 로마의 평화는 200여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하나님의 평화는 2천년 전 목자들에게 임한 이후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의 온갖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를 만들고 있고, 오늘 성탄예배에 함께 하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의 증거요 증인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현실

작년 한국YWCA 100주년을 뜻깊게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인 2023년은 어떤 해로 보내셨나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시작한 100개의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성평등, 탈핵기후생명 등의 중점운동, 지역법인화, 회원 증가가 있었나요?

새로운 100년의 기대와 소망을 안고 출발한 첫 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와 중점 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 2023년, 탈핵운동을 했지만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막지 못했습니다. 성평등 운동을 했지만 여가부 폐지 논란은 미해결 상태입니다. 평화 운동을 했지만 남북관계는 과거로 후퇴하여 단절을 넘어 긴장과 대결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구호는 무색하고, 우리의 활동은 참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내색은 못하지만, 좌절-회의-낙심-탈진이 깊어진 분은 없으신가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우리의 활동과 사업, 어느 정도 물이 채워지나 싶은데 더 크게 깨지는 항아리 같은 세상… 하나님의 평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이자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사람들을 통해 깨진 세상에 평화를 채우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우리 마음을 채웁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평화의 길을 갑시다. 주가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평화! 주가 사랑하시는 YWCA에게 평화!

사실 너머의 세계를 보려 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괴물이다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연구위원

저마다의 엇갈린 시선으로 마주하는 현실

영화 <괴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연출하고, 아동학대를 그린 드라마 <마더>로 유명한 일본의 극작가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쓴 작품으로 올해 칸영화제에 초청되어 '각본상'을 받은 대작이다. 여기에 영화의 묵직한 감동을 더해준 것은, 장면 장면 속에 서 각각 주인공들의 말하지 못한 진실들을 소리로서 보여준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들이었다. 그는 지난 3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터라 영화가 끝나도 나서도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제목이 대체 왜 '괴물'일까? 라는 의문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등 각각의 주인공이 마주치고 바라본 현실이 각각의 시선에서 조금씩 엇갈린 채 펼쳐질 때마다 마치 퍼즐조각을 맞추듯 그 답을 찾아야만 했다.

일본 어느 작은 도시에서 싱글맘으로 세탁소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인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가 "돼지의 뇌를 이식한 인간은 인간일까 돼지일까?"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 후 연일 이상한 일들을 겪는다. 아들 물통에는 흙탕물이 들어있고, 신발도 한 짝을 잃어버린다. 게다가 어느 날엔 귀를 다치고 머리까지도 바짝 잘린 채 돌아온다. 사오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담임 교사인 호리의 학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 얼마 전 불에 탄 빌딩에 있는 풍속점 걸스바에 담임선생 호리가 드나들었다는 소문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준다. 그는 마침내 학교에 들이닥쳐 교장선생과 담임 호리에게 항의한다. 하지만 담임과 교장선생을 비롯한 학교선생들의 태도는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어서 사오리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마침내 교사들에게 어이없는 요구와 항의를 일삼으며 갑질을 하는 이른바 '몬스터 페어런트'가 되어버린다.

한편, 사오리의 아들 미나토는 늘 외톨이에다 여자애처럼 행동하는 요리가 꽤나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된다. 미나토는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요리를 지켜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지만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아이들 앞에서는 요리를 멀리하고 어쩔 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기도 한다. 담임인 호리는 우연히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힌다고 오해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엄마 사오리에게 사실 미나토는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라고 강변한다. 담임인 호리도 자신이 목격한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엄마와 담임, 그리고 교장 선생을 비롯한 어른들에게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인식된 두 아이 미나토와 요리는, 정작 학교 밖 자신들만의 비밀 아지트인 폐선된 철로가의 낡은 기차 속에서 서로의 진실을 만나고 그 세계 속에서 서로의 친밀감과 우정을 깊이 쌓아간다.

누가 괴물인가?

폭풍우로 산사태 경보가 발생한 날, 미나토를 찾아다니던 사오리와, 학교를 그만두기 전 아이들의 마지막 작문을 보다가 요리와 미나토의 관계를 알게 된 담임 호리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찾아나선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보고 판단한 사실 너머의 아이들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왜 미나토의 물통엔 흙탕물이 가득했는지, 신발은 왜 한 짝밖에 없는지, 학교에선 왜 미나토가 요리를 멀리했는지….

폐선된 철로가에서 자신들의 놀이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괴물은 누구지?"

이 영화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이 말들로 허공에 둥둥 떠다니던 영화 속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진다. 사실 괴물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각자는 사실 모두 괴물이다. 걸스바에 다닌다는 소문을 믿고 호리 선생이 아들을 학대했을 것이라 굳게 믿고 폭주하는 사오리도 자신의 편견에 근거하여 호리를 폭력 교사로 몰고 가는 괴물이다. 호리 선생 또한 어쩌다 포착한 한 장면으로 마코토가 요리를 학대하는 아이라고 사오리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면에서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괴물이다.

미나토도 마찬가지다. 괴롭힘 당하는 요리를 보고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때론 폭력에 가담하고, 자신의 이상한 언동이 호리 선생 때문인 것처럼 행동하는 괴물. 요리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장면을 방관하고 용인하는 아이들도 학교폭력이 지속되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다. 피해자로 인식되는 요리는 어떠한가? 요리 또한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는 아이이지만 빌딩에 불을 지르고도 태연한 괴물이다. 학교 선생들도 다를 바 없다. 교장은 자신의 실수로 손녀를 죽게 한 사실을 끝끝내 숨기려고 남편이 저지른 실수로 조작하면서 자신의 불명예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학교선생들은 항의하는 학부모들 면전에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기를 종용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은 모두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편견과 두려움이 키우는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 영화에서 말하는 "괴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괴물을 굳이 찾는다면 영화를 보면서 괴물 찾기를 하는 '우리들'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영화 포스터에 적힌 대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본다. '인간의 마음이란 게 있는가'. 서로의 얼굴에서 '괴물'을 발견하고 그 점을 단죄하고 편 가르는 데 익숙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어느새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가장 정확하며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활 세계의 안위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다른 이를 쉽게 괴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눈앞에 포착된 사실 이면의 가리워진 사연 따위는 조금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괴물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있다. 편견과 두려움 속에 몸집이 커진 어른 괴물은 커다란 관악기를 불게 하면서 어린 두 주인공 미나토와 요리의 슬픔과 억압된 소리를 맘껏 토해내도록 도와준다. 들판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미나토와 요리의 모습은 괴물의 시간에서 해방된 아이들의 생명력을 벅찬 희망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찰해야 할 일이다. 내 모습이 인간인지, 괴물인지. 나에겐 인간의 마음이란 게 있는지.

진정한 탈핵국가 독일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김신희
(사)광주YWCA 사무총장, 사무총장해외연수 단장

독일의 에너지전환 도시 및 기관 탐방을 통한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한 '2023사무총장 해외연수'를 10월 21일부터 8박10일로 다녀왔다. 사무총장 해외연수는 3년마다 진행되는데 5년 이상 된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사무총장의 YWCA 운동 역량 및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YWCA 운동비전 공유와 연대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참가자는 총16개 회원YWCA 사무총장과 연합회 실무 2명, 그리고 현지의 전문가가 합류하여 7개의 기관을 탐방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을 선언했던 나라 독일! 2023년 4월 15일 남은 3기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여 진정한 탈핵국가가 되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연수 내내 가장 가슴에 남는 말은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아끼고(절약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단열시공, 삼중창 등) 대체에너지(태양열, 풍력,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날은 문화체험으로 여성역사를 중심으로 하이델베르크 시간여행을 떠났다. 1386년에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여성의 선거권과 학습권 등 성평등 역사를 테마로 한 구도심기행을 하였다. 첫번째 방문지인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패시브 하우스는 100%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로서 마을전체가 건축물을 이용해서 냉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수직정원을 가꾸어 햇빛을 차단하고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며 공기정화까지 가능하게 하고 옥상정원을 만들어 옥상표면의 온도를 낮춰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두 번째 방문기관은 네카어강에 위치한 에슬링엔시의 기후중립도시지역 '노이에웨스트 에슬링겐' 이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성된 과잉 전력을 수소로 변환하여 저장했다가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사용 방식을 현실화 한다. 에슬링겐 시민위원회는 상향식 행정소통기구로 어느 곳보다도 행정과 주민 사이의 소통이 선진적인 곳으로 독일 내 많은 지자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기후중립 지구 '노이에 베스트슈타트(Neue Weststadt)'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도시 계획을 진행해왔다. 개발 과정에서 생태적 환경 보존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사려 깊은 이행 과정으로 유명하다.

세 번째 방문기관은 환경수도인 프라이부르크의 생태주거단지 '보봉마을'. 특히 친환경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시는 도보, 자전거, 근거리 공공교통수단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교통량 발생 방지정책을 쓰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주차 공간 관리와 도로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네 번째 방문기관인 솔라 콤플렉스는 본사 외벽과 옥상

엔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세워진 지역시민기업으로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지역에서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발굴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녹색당을 포함한 개인 및 회사가 주주로 참여한 지역시민기업으로서 에너지전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방문지인 뮌헨시내-시청사 및 이자르강 하천복원사업 현장. 이자르강 복원의 주요 성과는 직선으로 흐르던 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홍수 피해가 줄고 유속을 낮춰 제방과 하상의 침식이 사라져 취수시설이 좋아지고 발전시설이 안정화되어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또한 여울과 백사장 등의 복구로 시민 유원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여섯 번째 방문지 '헤르만스도르퍼 유기농가'. 유럽, 미국 등 대형축사가 발달한 시기였던 1980년대에 유기농으로 돼지를 기르는 일을 시작한 곳으로 자연과 동물의 존엄을 생각하는 경영철학 기반으로 유기농법과 공생농업의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동물농장이다. 행복한 동물들의 삶과 죽음을 고민하며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축산 분뇨로 바이오가스를 생성해서 에너지의 50%를 자체 해결하고 있었다. 충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길러지는 동물들, 곳곳에 펼쳐져 있는 녹색 환경, 직접 운영하는 유기농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일곱 번째 방문지인 '지구의 벗 분트 독일 지부'는 1975년 처음 자연보호 운동이라는 고유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운영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며 재정의 많은 부분은 유산 기부를 통해 유지하고 있다. 연수팀은 각 지역에 돌아가 권역별로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와 분트 회장과 자원활동가의 컨설팅을 받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날 ABO Wind 라는 풍력회사가 만든 생태탐방로를 걷게 되었는데 곳곳에 퀴즈판, 놀이 기구 이용한 배움 도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생각하는 길이자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였다. 풍력발전으로 파괴될 수 있는 숲에 대한 복원을 진행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2024-2025 한국YWCA 운동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작게나마 태양광 패널의 경험을 시작해보고, 지역 내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의 기반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재생에너지는 현재 10퍼센트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연수였다.

11월 월례아침기도회: '돌아봄'과 '내다봄'

11월 1일(수)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11월 월례아침기도회가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는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20여 년간 기독여성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홍보연 목사가 마태복음 21장 28~3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분열과 갈등, 차별과 편견 등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와 세계 곳곳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2023 YWCA 성탄예배

YWCA 성탄예배가 12월 7일(목) 오전 11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성탄예배는 생명평화, 여성평화, 전쟁과 평화, 세대 간의 평화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평화를 위해 한국YWCA 활동가로서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세운 비전과 사명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나들목교회(일산) 이진아 목사가 누가복음 2장 8~20절 말씀을 통해 '주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민희 예술단은 가야금 특별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자세한 내용은 44쪽)

일본 방사성 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11월 2일(목)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명예교수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핵산업의 거짓과 은폐를 꼬집고, 방류로 인한 피해가 괴담이라는 현 정부의 입장이 비과학적임을 강조했다. 연합회 최수산나 국장 또한 여성, 청소년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총 1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지자체 보조금도 전면 삭감하면서, 오염수 방류 대응 비용으로 3조 14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

2023 YWCA-YMCA 세계기도주간 연합예배

11월 12일(일)부터 18일(토)까지 2023 YWCA-YMCA 세계기도주간이 '씨앗을 심고 꽃이 피기까지: 연대를 통해 희망과 사랑을 키우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도주간을 맞아 세계YWCA에서 제작한 기도주간 책자는 한국어로 번역해 배포됐으며, 세계YWCA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도 함께 연합예배 순서지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11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YWCA 대강당에서 공동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는 총 100여 명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참여했다. 연합회 여성신학위원인 전수희 목사가 '오늘, 우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제16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1월 15일(수) 오후 1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 연합회 주관으로 제16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등의 문제 해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다. 이번 수요시위 사회는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원영희 연합회 회장이 주관단체 인사를 나눴으며 이한빛, 유에스더, 홍수진 활동가가 각각 성평등, 탈핵, 국제 관점에서 연대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용수 피해생존자가 특별 발언에 나서 주관 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명서 낭독은 김혜경 회장과 이경애 사무총장, 김수현 활동가(이상 고양YWCA), 연합회 이예림 활동가가 맡았다. 연합회는 내년 2월 14일 수요시위에도 주관단체로 함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식품안전 소비자교육 '지속가능한 식품 구입에서 폐기까지' 개최

연합회는 (재)식품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지속가능한 식품 구입에서 폐기까지'를 주제로 식품안전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식품 정의부터 보관 방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식품관련 내용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식품 패키징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이 '올바른 식품 선택과 보관방법'에 대해 강의했고, 박은진 CJ제일제당 부장이 '친환경 패키징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교육에는 오프라인으로 40여 명, 온라인으로 30명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제4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

제4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이하 청만세)이 11월 18일(토) 연합회에서 개최됐다. 청만세는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조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청만세에서는 ▲기후위기 ▲성평등 ▲평화통일 등 YWCA의 중점 운동과 금융·경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다. 그 결과 평화 소녀상 입체퍼즐 만들기와 QR코드를 통한 낱말퍼즐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가장 기억해야 할 순간(가기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 그린 캘린더를 제작한 '노로가 했수다' 팀과 QR코드를 이용한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책자를 만든 '포항중앙고등학교' 팀이 수상했다. 일회용품 저감 디자인을 통한 탄소 감소 프로젝트를 진행한 '뚜른 장미 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가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연합회와 권인숙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쿠키뉴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관계자와 공익활동 조직 관계자 등 77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102명이 참석하는 등 총 179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1세션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 2세션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개최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해 제정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올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변화를 이끄는 세 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직무설계 ▲자립훈련 ▲고용 연계를 도모하는 이진희 대표((주)베어베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기후위기와 환경, 난민, 여성, 인권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공익적 법률 활동을 펼쳐온 김보미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젊은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한국인의 해외 입양에 관한 정보 접근 및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한국사회 입양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한분영 대표(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가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2023 흥청망청 프로젝트, 지역여성활동가 두 팀 지원

흥청망청 프로젝트가 두 팀의 지역여성활동가를 지원했다. 2022년 연합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흥청망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23 흥청망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지원팀으로 선정된 팀은 '북두칠성'과 'TTL'이다. 북두칠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원팀으로 선정된 팀으로 한예종 출신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북두칠성은 올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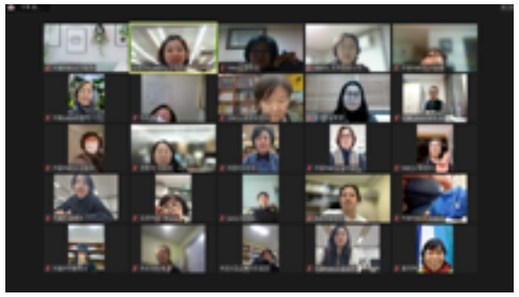
성청소년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해 대본을 만들고 10월 19일(목), 20일(금) 이틀간 일반인과 청소년을 초청해 낭독극을 진행했다. 또 다른 지원팀인 TTL은 올해 처음 선정된 팀으로 군산과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여성활동가들로 구성됐다. TTL은 올해 군산을 배경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했고, 내년 초 전주국제영화제에 해당 작품을 출품한다.

제30차 YWCA 세계대회 온라인 개최

제30차 YWCA 세계대회가 11월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온라인 루미플랫폼에서 진행됐다. 한국YWCA는 정대표와 방청대표를 포함해 총 16명의 대표단을 꾸려 참여했다. 방청대표에는 회원YWCA 활동가도 함께했다. 이번 세계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최초 YWCA 세계대회다. 대회는 사무회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계대회 결과 향후 4년간의 세계YWCA 리더십과 전 세계YWCA 운동 방향 및 예산, 구체적인 운동 주제인 결의문과 성명서 등이 확정됐다. 한국YWCA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안했고, 성명서는 세계YWCA 회원국들의 동의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문과 미얀마 평화, 페미사이드 저지, 페미니즘 백래시 저지 등을 주제로 한 성명서가 통과됐다. 결의문과 성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번역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6쪽)

YWCA 소비자 모니터 교육



YWCA 소비자 모니터 교육이 11월 29일(수)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표준'의 다양한 활용과 2024 트렌드를 통해 2024년을 전망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전진수 표준인증안전학회 부회장이 '표준 인증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의했고, 한다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전망했다.

한국YWCA, 제28회 소비자의 날에서 대통령상과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미연 제주YWCA회장과 정혜원 대전YWCA 회장이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자의 날 유공자로 인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봉숙 부산YWCA 위원과 황정원 목포YWCA 국장도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은 12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엘타워 그레이스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단체장과 회원, 한국소비자원, 학계, 지자체 등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27회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열려

제27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이하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이 서울시 중구 연합회(페이지명동) 4층 A스페이스에

서 개최됐다.

올해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KBS 청주 특별기획 '양백의 소녀들'(KBS청주)에게 수여됐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드라마 '남남'(KT스튜디오지니)에게, 생명 부문 우수상은 '지구 위 블랙박스'(KBS)에게 돌아갔다.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에는 '어른 김장하'(MBC경남)가, 청년 부문 우수상에는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다'(씨리얼)가 선정됐다.

김선영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심사위원은 "각 주제의 적합성과 구현의 완성도를 유심히 살피되, 대상은 좀 더 폭넓게 시대와 사회를 조망하는 시선에 점수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41쪽)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기후정의기도회

"새만금 신공항 멈춰라, 수라갯벌을 지켜내자" 11월 30일(목) 오후 2시 군산공항 바로 옆 남수라갯벌에서 올해 마지막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주관의 기후정의 기도회가 열렸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사태와 영화 <수라>로 잘 알려진 수라갯벌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공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 군사시설로 전락해 전북지역 경제 성장은커녕 지역안보의 위협요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수라갯벌을 다시 숨쉬게 하기 위해 고양, 군산, 남원, 익산, 전주YWCA 그리고 연합회 활동가 19명이 현장에 모였다. "우리는

당신이 주신 모든 생명들을 당신이 그러신 것 같이 사랑하고. 돌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에 정의의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참석자들의 염원을 담은 중보기도가 황준의 집행위원장, 우원경 군산YWCA 회장, 윤동혁 기독교윤리실천 활동가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한국정부의 COP28 대응 규탄 기자회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2월 8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정부가 11월 30일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 기후총회(COP28)에서 핵 로비에 몰두하고 급기야 핵발전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COP28에 참여한 117개국(12월 5일 기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올리겠다는 서약에 참여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 3배 서약 폐기 ▲재생에너지 그린워싱 멈추고,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정책 수립 ▲온실가스 배출 9위 한국, 책임 있는 손실과 피해 기금 약속 등을 요구했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1.1 ~ 2023.12.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규희 고이나 구정혜 권부남 김덕점 김병찬/임정임 김선숙 김은경 김형남 나신숙 류경화 류춘지 박은숙 백운미 서금순 신성균 신희자 신희정 안병미 안정희 오대근 오순숙 오초녀 윤수정 이선엽 이성란 이숙현 이영순 이예린 이종임 이종경 이주영 안정란 장성영 정용아 정은하 정현주 조영미A 조영미B 차경애 편옥순 하미용 하행여	3,100,000
단체	강릉YWCA 거제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동해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서울YWCA 세종YWCA 순천YWCA 제주YWCA 제천YWCA 안동YWCA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안산YWCA 울산YWCA 천안YWCA 청주YWCA 포항YWCA 하남YWCA 대상 샘표 한솔사무기기 홈플러스 CJ제일제당	10,706,000
기타	NS홈쇼핑 바자회 수입	3,168,000
	합 계	**16,974,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3.10.1.~2023.11.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종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영헌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나착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송인효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연규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천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남현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은경 한영수 홍기자	2,475,000
단체	목포YWCA	50,000
	합 계	**2,525,000**

YWCA 흥청망청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1.1 ~ 2023.12.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미연 구정혜 김미경 김민승 김인호 김주영 김종희 김지영 나길선 박윤애 배정미 배한솔 서다미 송록희 송영주 윤정향 이은영 이혜련 임순옥 조은영 조은지 장승호 장형미 정석민 정혜원 조영민 한영수 함희경	7,662,964
단체	김필례기념사업회 (주)럭스나인 한국YWCA연합회 직원회	3,317,500
	합 계	**10,970,464**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최경선 간사

2023 강릉YWCA 회원대회 '도란도란 숲길 걷기'

(사)강릉YWCA는 11월 6일(월) 송정해변 솔숲에서 회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원대회는 '도란도란 숲길 걷기'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팀을 짠 후 탈핵기후생명 주제에 맞게 팀명과 구호를 정한 뒤 프로그램에 임했다. 회원대회는 여는마당-예배와 개회식으로 시작해 걷기마당-해변 숲길 걷기, 미션 수행, 닫는 마당-행운권 추첨과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중 회원들의 열정과 협동심을 엿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단연 '미션 수행'이었다. 미션 수행에는 ▲탈핵송 부르기 ▲머슬비치에서 내 인생 최고의 인생샷 찍기 ▲세인트 조각공원에서 플로깅 인증 ▲YWCA를 형상화하는 인증샷 찍기 등 4가지 미션이 준비됐다. 회원들은 각 미션에 임할 때마다 힘차게 팀 구호를 외치며 시작했다. 인증샷 미션을 할 때는 여러 포즈를 개발해 독특한 사진을 담아냈고, 플로깅을 할 때는 쓰레기 하나라도 놓칠세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깨끗한 해변을 만들어나갔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수능일 맞이 학교 앞 응원캠페인 진행

(사)동해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수능 전날인 11월 15일(수) 오후 12시 묵호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한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수험생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수험생들에게 핫팩과 컴퓨터용 수성펜을 나누어 주면서 "힘내, 할 수 있어"라는 격려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

(사)서울YWCA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24일(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생태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를 진행했다.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는 송진순 교수(이화여대 외래교수·대학교회 부목사)와 함께 YWCA 운동인 기후위기대응·성평등·평화운동 등을 결합하는 이론 작업이자 실천의 토대인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성서 읽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가며 '자기 돌봄이 지구 돌봄으로 이어지는 변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사)속초YWCA

김다미 간사

일일찻집&바자회 '마음 나눔 데이'

(사)속초YWCA는 10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30분 조양감리교회에서 '마음 나눔 데이'란 주제로 '2023 속초YWCA 일일찻집&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청소년 운동 ▲기후정의 환경운동 ▲성평등운동 등 속초YWCA 목적사업 활성화

를 위해 진행했다. 속초YWCA는 목적사업이 이번 행사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일일찻집에서는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바자회에서는 물품 구매자들이 비닐봉지가 아닌 재활용한 쇼핑백,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바자회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기증받은 친환경 EM제품, 채소, 건어물, 젓갈, 지역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원주YWCA
최은미 간사

청소년 꿈 지원을 위한 역사문화교육탐방 프로젝트

(사)원주YWCA는 11월 21일(화)부터 11월 22일(수)까지 원주시 남녀 중학생 12명과 실무자 5명이 함께하는 청소년 역사문화교육탐방을 진행했다. 탐방 첫날, 참가자들은 롯데월드에 방문한 후 뮤지컬 '더북-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했다. 둘째 날에는 서울 연세대학교를 탐방하고, 국회를 견학한 뒤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한반도 생태평화광광지 등도 방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더파크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인천YWCA
서에스더 간사

2023 인천YWCA 위원의 날 개최

(사)인천YWCA는 11월 16일(목)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위원, 이사, 증경회장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YWCA 위원의 날을 개최했다. 위원의 날 행사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천YWCA의 역사와 기독여성리더십에 관한 특강이 마련됐다. 2부에는 참가자들 간 단합을 쌓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게임 '테이블 자유투', 업사이클링 체험 '냄비받침 만들기' 등등에 참여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프로그램을 소화한 후에는 원을 그리고 서서 한 명씩 돌아가며 안아주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사)춘천YWCA
이지연 간사

아나바다:리턴즈

(사)춘천YWCA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오후 3시 춘천YWCA회관에서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아나바다:리턴즈'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기후위기 대응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회용품처럼 소비되는 의류와 생활용품을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춘천 시민들 또한 춘천YWCA 뜻에 함께했다. 지역 업체에서 버려지는 새 의류를 기부했고, 시민들은 어린이 장난감, 성인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 춘천중앙교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일부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바자회는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바자회 판매 수익금은 운영비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지역에서 만드는 희망경제-자원순환경제포럼

(사)고양YWCA는 11월 16일(목) 고양시민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에서 만드는 희망경제-자원순환경제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현 정부와 고양시의 자원순환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률이 단위 면적당 세계 최대"임을 지적하며 "부족한 소각장 확대와 중장기 관점에서 세계적인 경제흐름인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의류쓰레기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곽선미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이야기했다. 김미수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 자원순환정책의 현황과 추후과제에 대해 논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쓰레기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자원의 위기인 기후위기시대에 개인적으로 실천할 내용을 적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한부모 장애청(소)년 가정 동절기 생활 지원금 전달

(사)광명YWCA는 11월 24일(금) 광명YWCA 소통공간에서 한부모 가정 중 장애청(소)년이 있는 세 가정을 선정해 김장 지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난 10월 한 후원자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광명YWCA로 지정기부금을 보내 마련됐다. 광명YWCA는 선정한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생활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사)남양주YWCA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일카페 개최

(사)남양주YWCA는 10월 25일(수)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키스톤스피시즈 카페 야외 광장에서 사단법인 창립기념을 위한 일일카페를 열었다.
먹거리, 물품판매대를 설치하여 실무자, 이사,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해주었고 남양주YWCA소개 및 후원회원 모집, YWCA 중점운동 현수막을 게시하여 YWCA의 역할 등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관기관, 시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이사, 위원,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원활하게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사)부천YWCA
박지인 대학·청년Y 회장

청년들의 평화기행: 철원으로 떠나다!

10월 28일 토요일, 15명의 (사)부천YWCA 청년 회원들은 리무진을 타고 철원으로 향했다. '청년들의 평화기행: 철원으로 떠나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차갑지만 상쾌했던 아침 공기 탓에 청년들의 마음은 평화기행에 대한 기대로 더욱 설렜다.
철원에 도착하니 국경선평화학교 정지석 교장이 청년들을 맞았다. "평화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정지석 교장이 국경선평화학교에서 진행한 평화특강에서 한 말이다. 청년들은 평화특강과 국경선평화학교 투어를 마치고 소이산 전망대에서 북한을 마주했을 때 정지석 교장이 한 말을 떠올렸다. 넓고 시원하게 뻗은 금빛 철원 평야, 강 하나 건너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북한. 청년들은 가깝지만 먼 북한을 바라보며 언젠

가 함께하기를 기약했다. 이번 평화기행에서 '만남'은 이렇게 청년들의 가슴에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사)성남YWCA

임은희 간사

성남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11월 14일(화), 올해로 4회를 맞는 성남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성남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사)성남YWCA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을 받아 성남시와 함께 공동 수행기관으로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해왔다.

이날 대상은 여성의류 맞춤형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안한 에이프릴 가든 심윤정 대표에게 수여됐다. 시상은 장명자 성남YWCA 회장이 맡았다. 심윤정 대표를 포함한 총 9개 팀이 상을 수여받았으며, 상금은 총 1,400만 원이 지급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이외에도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입주권 ▲기업 맞춤형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등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사)수원YWCA

정혜진 간사

정전70주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철원DMZ 평화생태기행

(사)수원YWCA는 10월 21일(토)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수원Y-틴과 수원대학청년Y, 사회운동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하는 철원DMZ 평화생태기행을 진행했다.

평화기행 참가자들은 올해 6월 완공된 국경선 평화학교를 방문해 정지석 목사의 평화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후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이산 평화순례 길에 나섰다. 끊어진 금강산 철길과 DMZ 철책 길을 걸으며 길 곳곳에 붙어있는 지뢰주의 안내판, 6·25당시 사용했던 물품, 임시 통신실을 보며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다. 소이산 정상에 올라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백마고지와 북쪽을 향해 "정전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를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안산YWCA와 함께하는 '2023 김장나눔행사'

(사)안산YWCA는 11월 22일(수)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강당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위해 한국금융증권 꿈나눔재단에서 절임배추를 후원했으며, 안산YWCA 이사 및 회원, 9개국(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김장김치 250박스(1박스, 10kg)는 김장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김장행사에 함께한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에 온지 5년이 되어가지만 김장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너무 재밌었고,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방민영 간사

2023년 회원과 함께하는 평화걷기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10월 31일(화) 과천정부청사역 부근 중앙로를 시작으로 과천 중심가를 돌며 평화걷기를 하였다. 이사, 위원, 실무자가 함께 참여한 걷기행사였다. 지난해에는 안양 범계역에서 평화걷기를 했는데, 올해는 과천에서 진행했다. (사)안양YWCA는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과천을 시작으로 군포, 의왕으로 평화걷기를 진행 중이다.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사, 위원, 실무자는 평화걷기를 하며 플로깅도 진행했기에 과천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다. 덕분에 과천 시민들에게 안양과천군포의왕YWCA의 평화운동을 알릴 수 있었다. 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내년부터 평화걷기를 상·하반기로 실시해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사)의정부YWCA

김윤숙 간사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 특강 프로그램 '노동의 가치'

(사)의정부YWCA는 11월 21일(화) 의정부 초등학교에서 '노동의 가치'를 주제로 씽크머니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들이 노동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어린이들이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초 5학년생 4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3차로 구성됐다. 1차 교육에서는 노동자와 직업, 산업 사회의 연관 관계 학습을, 2차 교육에서는 AI가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과 대체할 수 없는 직업,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알아봤다. 3차 교육에서는 골든벨 경제퀴즈를 진행해 노동에 대해 즐겁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YWCA는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노동의 본질과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건강한 직업관을 가지며,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알게 해 노동자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독려했다.

(사)파주YWCA

김래정 팀장

파주YWCA '너나들이' 청소년 평화 버스킹 실시

10월 28일(토)과 11월 4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평화두루나눔) 야외공연장에서 파주YWCA '너나들이'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외치기 위해 평화 버스킹을 진행했다. 너나들이는 '너니 나니 하며 터놓고 지내는 사이'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남북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지내고 소통하는 평화연습을 통해 남북한 상생과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알리자는 뜻에서 사용했다. 청소년들은 이번 버스킹을 통해 남북평화통일과 관련한 작사 작업을 했고, 작사·작곡 지도강사와 함께 '너나들이 평화세상' 노래를 만들고 버스킹 당일 합창했다. 이외에도 독창, 첼로, 바이올린 연주, 너나들이 댄스 팀의 댄스 공연 등이 펼쳐졌다. 너나들이 청소년들은 공연 말미에 피켓을 들고 평화누리공원을 행진했다. 버스킹을 관람하던 시민들도 평화행진에 함께해 평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하남YWCA

김상미 팀장

(사)하남YWCA, 피스온콘서트 개최

(사)하남YWCA는 10월 19일(목) 오후 6시 하남 미사도서관 4층 미사홀에서 피스온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 공감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콘서트 사회는 신정원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배윤례 회장이 무대 인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등의 성악가를 비롯해 수필 작가 하모니카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 등이 콘서트를 풍성하게 했다. 소프라노 이지인은 「Think of me」를 불렀고, 바리톤 이동준은 「청산에 살리라」, 「투우사의 노래」 등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그룹 아미치 오카리나는 「개똥벌레」, 「바람이 싣고 가는 것」 등을 연주했고, 윤정희 수필가는 「만약 내가」, 「가을의 길목에서」 를 낭독했다. 이외에도 피아니스트 윤유경, 바리톤 이정근, 고운소리 하모니카, 하남와이 합창

단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콘서트는 출연자 전원이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며 관객과 함께 통일을 향한 소망을 되새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팀장

(사)논산YWCA, 후원의 밤 개최

(사)논산YWCA는 11월 23일 오후 논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2023 논산YWCA 후원의 밤 행사로 가페라 가수 이한 콘서트 '나와 가족을 사랑하다'를 개최했다. 논산YWCA 후원의 밤 행사는 여성 및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시민운동 기금 마련, 논산YWCA 활동 홍보를 위해 매해 열리고 있다. 올해 후원의 밤 행사에는 성악가이자 크로스오버 테너인 가페라(가요+오페라) 가수 이한이 논산YWCA와 함께했다. 이한은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노래와 이야기로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관객들은 웃음, 눈물로 그의 공연에 화답했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사)대전YWCA 테마가 있는 역사탐방

(사)대전YWCA는 11월 9일(목) 오전 8시 30분 회원 18명과 함께 대구 청라언덕으로 역사탐방을 다녀왔다. 대구 근대문화를 탐방하며 우리 역사 속에서의 기독정신과 선교사들의 업적을 알아보고 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다. 대전Y 회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대구 근대골목투어를 진행했다.
역사탐방은 은혜정원과 대구사과 시배지, 향촌문화관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은혜정원에서 어둡고, 가난했던 시절 이국에 와서 배척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의 삶을 엿볼 수 있었고, 대구사과 시배지에서는 대구가 사과로 유명해진 유래를 살펴볼 수 있었다. 향촌문화관에서는 옛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사)세종YWCA 후원의 날 행사 개최

(사)세종YWCA는 11월 23일(목) 오후 4시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2023년 세종YWCA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총 120명의 회원과 후원자, 내빈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후원의 날 행사는 세종YWCA의 75년 역사를 돌러보는 사진 전시와 시네마 콘서트로 꾸려졌다. 1부 행사에서는 김인숙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고, 회원위원회 위원들이 비전문을 낭독했다. 2부 행사에서는 '지구를 사랑하다'라는 주제로 콘서트가 열렸다. 성승한 첼리스트와 민시후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연주에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 장면이 곁들여져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제천YWCA
김미경 팀장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제천YWCA는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제천YWCA 교육실에서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16명을 대상으로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다시 서는 제천YWCA'를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강과 성격검사, 체험 프로그램 등이 4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강 시간에는 '시민사회 이해'와 '집단 의사결정 연습을 통한 효과적인 팀워크'를 이해하는 강의가 마련됐다. 성격검사 시간에는 실무활동가들이 LCSI 성격검사(주도형, 우호형, 표출형, 분석형)를 통해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함께 라탄 바구니를 만들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사)천안YWC
곽효정 팀장

(사)천안YWCA, 노인인권 공모전 '마주한 노년' 시상식 진행

(사)천안YWCA는 11월 6일 오전 9시 30분 3층 소강당에서 노인인권 공모전 '마주한 노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마주한 노년'은 천안YWCA에서 지난 10월까지 충남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림, 시 공모전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침해되고 있는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 노인이 그림과 시를 통해 직접 이야기하고, 이를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시상은 그림 부문인 '실버 그림 그리기'와 시 부문 '나도 시인'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각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실버 그림 그리기 대상은 아름답게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 바람을 담은 '아름다운 동행'을 그린 유경여 님에게 돌아갔다. 나도 시인 대상은 '엄마가 딸에게'라는 시를 쓴 신용엽 님에게 수여됐다. 신용엽 님은 자신이 쓴 시에서 80여 년에 걸쳐 본인이 쌓은 삶의 지혜를 딸에게 전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사)청주YWCA
이드림 간사

농부의 이야기 담은 '농민장터'

(사)청주YWCA 농민장터가 10월 21일(토)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열렸다. 농민장터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직거래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지구와 농촌을 생각하는 장터이다. 장터에는 '농민장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표고버섯과 고구마 등의 농산물과 사과주스, 오디 잼 등의 농산가공품이 판매됐다. 온 가족이 장터를 즐길 수 있도록 천연비누 만들기, 청년 농가 시식회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외 살기 좋은 청주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정의인 간사

'양성평등 지키미 이제 ME' 교육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10곳 및 발달장애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거제시 양성평등지원사업 '양성평등 지키미 이제 ME'사업을 진행했다. '양성평등 지키미 이제 ME'는 전문 강사가 직접 발달장애인 기관을 방문해 '나의 몸의 변화', '동의와 경계',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인식 확립'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상담소는 한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3주간 총 3회기의 교육을 진행했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나와 상대방의 경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이나 디지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담소는 발달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교

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김해YWCA
배정숙 부장

홀로어르신 돕기 위한 일일 드라이브스루 및 의류 전달 진행

(사)김해YWCA는 11월 20일(월)부터 한 달간 지역 홀로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내의 및 패딩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목) 김해YWCA 앞에서 진행한 '일일 드라이브스루 브런치 행사'를 통해 지원 기금을 마련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와 농협은행 김해시지부도 후원금으로 힘을 보탰다. 김해YWCA는 패딩 조끼 300벌을 구입해 홀로어르신에게 제공했다. 이외 경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에서도 무릎담요 200개를 기부해 11월 18일(토) 홀로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사)대구YWCA
박선혜 간사

(사)대구YWCA 창립 100주년 기념공연 '청靑춘春여女찬贊' 성황리 개최

(사)대구YWCA는 11월 28일(화)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대구YWCA 창립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 '청靑 춘春 여女 찬贊'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춘여찬은 대구의 젊음과 푸르름(靑), 새롭게 깨어나는 봄(春), 여성의 이야기(女), 지역의 공동체성을 끌어내고 도울 다짐(贊)을 담은 창작 스토리 퍼포먼스이다. 대구YWCA는 이번 공연에 대구를 사랑하는 대구 여성과 대구YWCA의 과거, 현재를 고스란히 담고자 했다. 이 공연은 대구YWCA 실무활동가와 자원활동가뿐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었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사)마산YWCA 배관 공사 및 기금 마련 위한 '사랑의 바자회'

(사)마산YWCA는 11월 9일(목) 마산YWCA회관에서 배관 공사 및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즉석 먹거리 장터에서는 소고기국밥, 부추전, 호박죽, 김밥, 약밥, 식혜, 샌드위치 등이 판매됐으며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장난감, 책, 의류 등의 생활용품이 방문객들을 맞았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구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농산물 장터도 마련됐다. 또한 온 가족이 장터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아름다운가게와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등 유관기관도 함께해 보다 다양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노후 된 YWCA 건물 배관 공사에 사용된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2023 부산YWCA생명사랑토크콘서트 투맘쇼 '너의 엄마, 아빠라서 행복해'

(사)부산YWCA는 11월 14일(화) 오전11시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부산YWCA 창립 77주년 기념행사 생명사랑토크콘서트 '너의 엄마, 아빠라서 행복해'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인기 개그우먼 트리오 '투맘쇼'가 출연했다. 투맘쇼는 두 명의 기혼 개그우먼 정경미, 김경아와 미혼인 조승희가 엄마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스탠딩 코미디 공연이다. 팀명 '투맘쇼'는 '두 명의 엄마' '엄마들에게 바치는'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부산YWCA 회원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총 400여 명이 이날 콘서트에 참석했다. 관객들은 공연을 보며 육아에 지친 마음을 위로 받고 생명과 출산의 고귀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청소년 소비자 교육 진행

(사)양산YWCA는 10월 14일(토) 양산 웅상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올바른 돈의 가치와 소비생활을 체득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용돈의 지출과 관리 등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행동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온라인 소비 패턴의 증가로 인한 온라인 소비 시 주의사항 ▲전자상거래 환불규정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경제교육 외에도 쌀뜨물 발효액과 친환경 치약, 친환경 세제 등의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천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2023 울산YWCA 이사·위원 워크숍

(사)울산YWCA는 10월 18일(수)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23 울산YWCA 이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1부 예배와 2부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안중덕 (부산샘터감리교회) 목사가 '환대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2부 워크숍에서는 2024-2025 YWCA 정책운동을 위한 논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중점운동 별로 그룹을 나눠 공통과제인 'YWCA의 활성화 방안'과 중점사업(성평등, 청소년 및 평화통일, 탈핵기후)의 지향점과 지양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와 위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울산YWCA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운동 방향과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지구쓰담, 진주쓰담, 지구 돌봄 하이킹&플로깅!

(사)진주YWCA는 11월 11일(토)과 15일(수) 두 차례에 걸쳐 탄소중립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진주시 일대 자전거 탐방로와 산책로, 등산로를 찾아 자전거 하이킹과 플로깅을 했다. 자전거 하이킹에는 지역 자전거 동호회원들은 물론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진주 시민이 함께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강둔치 일대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평거동 둔치-칠암동 둔치-주약동 둔치-평거동 둔치로 돌아오는 코스로 자전거를 타며 쓰레기를 주웠다.
한편 진주YWCA는 11월 13일(월)과 29일(수) 월아산과 가좌산에서 진주YWCA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이주민과 진주YWCA어린이집 원아들이 함께하는 플로깅도 진행했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스무 살을 대비하는 경제교육

(사)진해YWCA는 11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20세를 대비하는 경제교육 강의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 바른 소비습관과 경제관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생소했던 경제 용어를 익히고,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아 경제원리를 파악해갔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돈의 사용, 이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창원YWCA

심진실 간사

헌옷 리·업 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및 작품 전시회

(사)창원YWCA는 10월 30일(월)~31일(화)까지 이틀간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헌옷 리·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헌옷 리·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마련된 것이다. 전시회에는 청바지로 만든 가방과 파우치, 니트로 만든 카디건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배우고 실천하는 지구사랑 페스티벌

(사)통영YWCA는 11월 11일(토) 통영시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지구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영시 환경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됐으며, 환경체험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됐다. 현수막과 포토존 등의 홍보물과 부대시설 등도 박스를 이용해 만들어 행사 취지를 드러내도록 했다. 행사 프로그램 또한 일상에서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것들로 꾸려졌다. EM치약, 아이스팩 디퓨저, 양말목 키링, 설거지 비누, 텀블러 가방, 반려식물 심기, 리필스테이션 등 총 8가지 체험 프로그램과 환경퀴즈 등이 마련됐다. 또한 폐건전지와 우유팩, 멸균팩 등을 수거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포항YWCA

김민경 간사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 "얘들아, 밥 먹자" 진행

(사)포항YWCA는 11월 22일(수) 대동고와 포항항도중 앞에서 1,000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침밥 먹기 "얘들아, 밥 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항YWCA 이사와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음료를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학생들을 응원하고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YWCA는 캠페인을 시행하며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일주일에 아침밥을 몇 번 먹는가?'라는 질문에 '매일'을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기는 했으나(약 40%),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는 청소년 수도 응답자의 4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외 아침밥으로 먹고 싶은 메뉴를 묻는 질문에는 밥, 국, 반찬 등의 한상차림(60%)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빵, 과일을 답한 응답자(약 30%)가 그 뒤를 이었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양YWCA

이효진 주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실시

(사)광양YWCA는 10월 25일(수)과 30일(월) 대한노인회 광양시지부회와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10월

25일 교육은 대한노인회 광양시 지부회 이용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조서비스 상품, 홍보관 관련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며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꾸려졌다. 10월 30일 교육은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원활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로서의 권익보장,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광양YWCA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거나 광양YWCA 소비자상담센터(061-762-9898)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공지했다.

(사)광주YWCA

오희경 국장

2023년도 제2차 이사·위원 연수회 개최

(사)광주YWCA는 2023년도 제2차 이사·위원 연수회를 11월 15일(수) 구례 자연드림파크 ICA홀에서 이사·위원·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노은미 회장이 인사말로 연수회 시작을 알렸고, 이진아 (나들목 일산교회) 목사가 'YWCA 자원활동가의 영성과 사명'을 주제로 영성훈련을 이어갔다. 중점사업인 탈핵기후생명운동과 관련한 강의도 마련됐다. 오하라 츠나키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탈핵신문편집위원) 팀장이 '우리 지역의 탈핵운동' 강연을 준비했다. 연수회에 참여한 이사·위원들은 광주YWCA 자원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군산YWCA

황수미 팀장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교육

(사)군산YWCA는 11월 21일(화)~22일(수) 2회기에 걸쳐 미장초등학교와 주성지역아동센터에서 총 7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교육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금융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구를 이용한 눈높이 맞춤 교육으로 진행됐다.

(사)남원YWCA

임진아 간사

스토킹·사이버폭력·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사)남원YWCA와 남원YWCA통합상담소는 11월 14일(화) 남원공설시장에서 스토킹, 사이버폭력,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관련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이 진행된 11월 14일은 남원공설시장 장날이었다. 남원YWCA와 통합상담소는 장날을 맞아 시장을 방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및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폭력에 대한 인식과 예방법 등을 알렸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사)목포YWCA 탈핵기후운동 워크숍

(사)목포YWCA는 10월 19일(목)과 25일(수) 목포 삼향천, 순천

시 일대에서 본부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탈핵 기후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생태계 살리기, 기후위기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타 지역 관련 활동을 벤치마킹해 보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실무활동가들은 하천 정화를 위해 EM(유용미생물군)을 황토에 섞은 흙공을 삼향천에 던지고, 그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등을 벌였다. 또한 타 지역 활동 벤치마킹을 위해 순천시에 위치한 쓰레기순환 복합 문화 공간인 업사이클센터더새롬을 방문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들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2023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2차 선정회의 진행

(사)서귀포YWCA는 11월 17일(금) 오전 10시에 서귀포YWCA 회관에서 제주도 내 여성 1인 사업장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2023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2차 선정회의를 진행했다.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 도내 1인 여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위원회는 현장 확인서와 서류심사를 검토한 후 1인 여성 사업장 25개소를 선정했다. 올해만 총 50개의 여성 1인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했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에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CCTV와 긴급상황 시 출동 가능한 비상벨 등이 지원된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역사 안에서 오늘의 소명을 찾다'

(사)순천YWCA는 11월 14일(화) 한국YWCA연합회(페이지명동)와 서울일대에서 이사 및 실무활동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 안에서 오늘의 소명을 찾다'라는 주제로 활동가 역량강화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의 주제 강연은 최수산나 연합회 국장이 맡았다. 최수산나 국장은 '젠더관점에서 바라본 기후정의'에 대해 이야기했고, 연수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2024-2025 순천YWCA 운동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방문한 서대문형무소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여성, 인권, 평화'를 위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사)여수YWCA
설수연 간사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樂(락) 페스티벌 개최

(사)여수YWCA는 11월 4일(토) 오후 1~4시까지 이순신 광장에서 관내 청소년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시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樂(락)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樂(락) 페스티벌은 학교 교내 동아리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여수시 관내 청소년들이 열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되는 행사이다. 행사 주최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행사 주관은 여수YWCA가 맡았다.
이번 페스티벌 또한 청소년들이 운영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하고 이끌어나갔다. 행사를 준비한 청소년들은 18개의 체험 부스를 기획했으며, 청소년 공연 동아리 10팀이 선사하는 댄스와 노래 공연도 준비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무드 등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폐 현수막으로 파우치 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익산YWCA
강지수 간사

(사)익산YWCA 맘편한데이 탐방

(사)익산YWCA는 10월 18일(수) 익산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익산 두동교회-성당포구마을-용안생태습지공원-아가페정원 코스를 탐방하는 '맘편한데이'를 진행했다. 기혼여성들이 육아 등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 사업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사업 '세상의 중심에서 엄마를 외치다' 일환으로 꾸려졌다. 17명의 익산시 여성들이 이번 탐방에 함께했다.
탐방 참가자들은 먼저 두동교회 구 본당을 돌아보며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성당포구마을과 용안생태습지공원에서는 깡통열차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갈대와 억새, 코스모스, 수련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코스였던 아가페정원에서는 메타세쿼이아 길과 맨드라미가 피어있는 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Y시민학교' 운영

(사)전주YWCA 시민특강 Y시민학교가 10월 5일~19일 매주 목요일 3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본 프로그램은 사회, 생태계, 문화 주제 강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기획됐다. 1회차는 연대할 수 있는 용기(장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2회차는 풍성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삶(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3회차는 드라마로 보는 나·우리·사회(오수경 청어람ARMC대표) 교육으로 진행됐다.

분열과 분리, 경쟁과 패권의 모델이 아닌 배려와 존중, 포용과 관용, 대화와 협력, 연대와 상생의 모델의 사회로,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고 생태적 한계 내에서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는 생태계로,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 소외된 개별적 존재를 드러내며 품어내며 함께 살아가는 문화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다짐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제주YWCA
김민지 간사

'공존과 상생을 위한 평화 만들기, 평화를 향해 도약하다' 개강

(사)제주YWCA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공존과 상생을 위한 평화 만들기. 평화를 향해 도약하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화교육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를 제주도민들에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평화아카데미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총 5개의 강좌로 구성됐다.
'평화를 향해 도약하다' 첫 강좌는 11월 9일(목) 오후 2시에 제주YWCA회관 강당에서 진행됐다. 김엘리(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소장) 교수가 '전쟁 시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김엘리 교수는 「유엔결의안 1325호」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력 분쟁 및 전쟁 상황에서 평화구축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월	쪽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자!	원영희	1·2	04
2023년, 꾸준하게 또 힘있게 나아가는 한국YWCA	구정혜	1·2	05
여성리더들: YWCA의 지속성을 향하여	함희경	3·4	04
청년! 청년성!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	박윤애	5·6	0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우리YWCA, 열이 한 걸음으로	정혜원	7·8	04
지금여기, 하나님나라 정의 이루는 YWCA회원공동체	고미연	9·10	04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공감과 연대로 행동하자	한금진	11·12	04

기도회·말씀 묵상

제목	필자	월	쪽
예수를 따른다는 것	김기동	3·4	05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임계점	김명수	3·4	26
정의의 비	이현아	5·6	05
여성의 시선에서 본 평화	백소영	5·6	38
하나님의 평강과 기다림	김여름	7·8	05
단비 같은 자매애	손은정	9·10	05
하나님의 뜻대로	홍보연	11·12	05
YWCA 기도순례 - 회원YWCA 순례기도회에서 확인한 정의·평화·생명의 YWCA정신 - 제2기 회원YWCA릴레이 순례기도회를 마무리하며	원영희 구정혜	11·12	26 27
성탄예배 주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진아	11·12	44

특집

제목	필자	월	쪽
2023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2023 정기총회 스케치 - 회원YWCA 신임회장단·권역협의회 대표, 신임사무총장 -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 제2회 이행자리더십 어워즈 수상자	편집실	1·2	06 08 12 16
탈핵이 기후위기 해법이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과 해법 - 핵발전이 내팽개친 탄소중립 기본계획 - 고리2호기 수명만료, 영구정지를 위한 우리의 과제	김혜정 김현우 이경아	3·4	06 09 11
2023 반핵아시아포럼 -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 인근지역보다 암발생 44% 높아, 경주 월성원전 주민투쟁 - 밀양에서 대만까지, 탈핵은 연대를 타고 흐른다 - 핵발전소에 갇힌 울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막아내자	유에스더 이상홍 남어진 이현숙	9·10	28 20 32 34
정전 70년, 한반도 여성평화를 논하다 -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공존이 가능한가 - 2023년 현재, 여성평화통일이 가야할 방향은? - 횡단 교차 십자가를 느끼게 하는 영화, 크로싱	조성렬 편집실 한미미	5·6	06 09 11
정전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 동아시아 정세와 전망, 평화 구축을 위한 제안 - 정전70주년에 평화를 생각한다 - 정전70년,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김준형 김성경 황수영	7·8	06 09 11

기획

제목	필자	월	쪽
정전 70년, 한반도 여성평화를 논하다 -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공존이 가능한가 - 2023년 현재, 여성평화통일이 가야할 방향은? - 횡단 교차 십자가를 느끼게 하는 영화, 크로싱	조성렬 편집실 한미미	5·6	06 09 11
정전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 동아시아 정세와 전망, 평화 구축을 위한 제안 - 정전70주년에 평화를 생각한다 - 정전70년,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김준형 김성경 황수영	7·8	06 09 11
2023 한국YWCA 정책협의회 - 탈핵기후생명운동 전국중점운동으로 정해 - 지역이 변화와 시민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한국YWCA - 2024~2025 한국YWCA운동 및 운영정책(안)	김혜정 김현우 이경아	3·4	06 09 11
제30차 YWCA 세계대회 -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의 힘, YWCA - 세계대회 방청대표 참가기 - 세계YWCA결의문: 동아시아 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연대 구축 - 세계YWCA성명서: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최수산나 김혜진 김대영	11·12	06 09 10 11

이슈포커스

제목	필자	월	쪽
남녀동등참여 정치관계법 개정	김은경	1·2	17
지역 RE-100 활동가 연구 조직 YWCA 다시 100년, 지역의 자리로부터	유에스더	3·4	13
기후위기와 재난그래도 '희망'은 있다: 성평등X 기후정책아카데미	김은경	5·6	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한국정부의 공조속에 현실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김혜정	7·8	14
2023 양성평등 임금의날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적은 임금 안돼 - 지역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이한빛 김난주	9·10	23 24

탈핵기후생명

제목	필자	월	쪽
탈석탄법, 무엇이 중요한지 묻는다	황인철	1·2	20
노후원전 말고 안전한 도시, 안전한 대한민국	민은주	5·6	16
신규핵발전소 건설,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	변인희	7·8	20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와 식품방사능 검사의 사각지대	김혜정	9·10	22
기후위기 역행하는 핵 발전 확대, 선두에 선 한국정부	이영경	11·12	14

평화

제목	필자	월	쪽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	이태호	1·2	22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일정상회담	전진호	3·4	16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성과와 한계	나핵집	9·10	16
평화를 옹호하고 점령에 맞섭시다	팔레스타인 YWCA	9·10	48
팔레스타인-이스라엘과 YW-YMCA	이윤희	11·12	12

청년 토크

제목	필자	월	쪽
2023년 교회청년의 현주소	대학·청년 YWCA	1·2	24
사순과 부활을 기억하는 기억하는 청년	대학·청년 YWCA	3·4	22
후쿠시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학·청년 YWCA	5·6	22
범죄도시	대학·청년 YWCA	7·8	28
내 친구 은둔 청년 이야기	대학·청년 YWCA	9·10	24
나의 스무 살	대학·청년 YWCA	11·12	20

소비자운동

제목	필자	월	쪽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과 소비자 기만	안정희	3·4	18
소비기한과 탄소중립	안정희	5·6	18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소비자 운동	안정희	7·8	24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피해예방	안정희	9·10	18
온라인 식의약 과대·과장 광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	안정희	11·12	18

성평등

제목	필자	월	쪽
남녀동등한 참여 Parity 그리고 민주주의	김은경	7·8	22
민주주의와 총선,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김은주	9·10	14
성평등 관점에서 본 여성 예능 < 사이렌: 불의섬>	김선영	11·12	16

연수보고기

제목	필자	월	쪽
에큐메니컬 선교컨퍼런스 : 동아시아의 페미니즘으로	이한빛	5·6	40
법인이사 해외연수기 : 각자 다른 모습이어도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나눈 시간	조은지	7·8	40
복지사업단 일본연수 : 2023 일본노인주거시설 및 도쿄 국제홈케어 재활박람회	배정미 윤수정	9·10	46
사무총장 해외연수 : 진정한 탈핵국가 독일,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김신희	11·12	48

줌: 인

제목	필자	월	쪽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우리가 막아낸다 - 인류 해양생태계 피해 아랑곳하지 않는 IAEA와 원자력계의 주장은 거부되어야 한다 -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김혜정 유에스더	5·6	32 35
한일YWCA협의회 - 한일YWCA '동아시아 생명과 평화' 논하다 - 한일YWCA협의회 참가기	편집실 고미연 이예림	7·8	36 39
기독청년 기후정의학교 - 기독청년은 왜 기후위기를 말해야 하는가	김수진	9·10	24

크리스챤의 눈으로 보는 문화

제목	필자	월	쪽
'다음을 위해 응답할 책임'	이윤숙	1·2	26
'나는 신이다'가 남긴 질문들	오수경	3·4	22
망해가는 지구난파선 위 자본과 계급, 욕망의 대환장파티 <슬픔의 삼각형>	이윤숙	5·6	20
아름다운 것들을 본 죄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	이윤숙	7·8	42
강북에선 영국 거장을, 강남에선 한국 괴짜를	김민주	7·8	44
아무나 쓰고 아무도 모르는 거버넌스	김유리	9·10	45
사실 너머의 세계를 보려 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괴물이다	이윤숙	11·12	46

이달의 현장

제목	필자	월	쪽
2023 Y-틴 전국협의회	편집실	1·2	28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조은지	1·2	30
2022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	이은혜	1·2	32
지역RE100 탈석탄법 제정 운동	유에스더	1·2	34
2023 YWCA 신임회장교육	이수진	1·2	37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서울역 캠페인	편집실	1·2	3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YWCA 캠페인	이한빛	3·4	28
3.11 후쿠시마 핵사고 12주기 부산 탈핵행진	편집실	3·4	30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장세영	3·4	32
Y-틴 실무활동가 워크숍	이은혜	3·4	34
신임이사교육	정서연	3·4	3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	편집실	3·4	36
4.14 기후정의파업	한기연	3·4	38
윤석열정부 1년, 여성가족부 평가 토론회	이한빛	5·6	24
2023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7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편집실	5·6	26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편집실	5·6	28
2023 YWCA 신임실무활동가 교육	이수진	5·6	36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편집실	7·8	28
2023 탈핵활동가대회	김민경	7·8	30
8.12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행동	이한빛	7·8	31
2023 Y-틴 전국회원대회	이은혜	7·8	32
부천YWCA 대학·청년YWCA 창립총회	박지인	7·8	34
청소년이 말한다, "지구는 한 개, 기후는 한계"	편집실	9·10	36
함께하는 우리, YWCA중견실무활동가	이수진	9·10	38
923기후정의행진 : 기후정의는 곧 탈핵이다	편집실	9·10	40
[지역과 함께] 보고 만나고 사랑하자 in 수라	김수현	11·12	29
"일본 정부는 일본국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편집실	11·12	32
함께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여성, 한국여성지도자상	박효정	11·12	34
제4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 대회 :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 세상의 큰 변화 가져온다	홍수진	11·12	36
민법과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되도록 제도 보완해야	임지혜	11·12	38
제27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앞으로도 여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YWCA가 협조해 달라"	편집실	11·12	41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제목	필자	월	쪽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선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1·2	43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 기자회견: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 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1·2	44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서울캠페인 성명서: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1·2	45
한국YWCA연합회 3.8여성의날 성명서: 폐지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불평등과 혐오입니다.		3·4	41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3·4	4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YWCA 성명서		3·4	43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날 선언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5·6	42
정전70년, 한반도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문: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5·6	43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5·6	44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 공동성명서		7·8	46
한반도평화대회 결의문: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7·8	47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7·8	48
후무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본정부 규탄 성명서: 인류와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정 반대한다!		7·8	49
세계YWCA 결의문: 동아시아 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연대구축		11·12	10
세계YWCA 성명서 :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11·12	11